

KREI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심재현 · 송미령 · 한이철 · 서형주



KREI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심재헌·송미령·한이철·서형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심재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4장 집필

송미령 | 선임연구위원 | 제3장, 부록 집필

한이철 | 부연구위원 | 제2장, 부록 집필

서형주 | 연구원 | 제1장, 부록 집필

R893 연구자료-1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9.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지아이지인

I S B N | 979-11-6149-372-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실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촌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주민들의 농촌 공간계획 수요와 농촌 유형별로 나타나는 주민들의 인식 차이 및 주민 필요 시설의 차이 등을 파악하는 것이 농촌의 계획적 정비 방안 및 정책 방향의 도출을 위해 필요하다.

본 자료집은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주민인식조사는 거주 지역에 대한 농촌 주민 인식과 농촌의 관리 방향 및 농촌계획의 도입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412명을 대상으로, 2019. 9. 23. ~ 2019. 10. 1. 기간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CATI)를 수행하였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향후 농촌의 계획적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3
2. 조사 설계	4
3. 응답자 특성	5

제2장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	9
2.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12
3. 농촌경관의 아름다움	18
4.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	20
5.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	22
6. 살고 있는 지역의 장점	25
7.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27
8.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29

제3장 농촌의 관리 방향 조사 결과

1.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	35
2.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 때 애로사항	38

제4장 농촌계획의 도입 방향 조사 결과

1.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43
2.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계획 필요 여부	46
3. 농촌계획 수립 시 우선되는 가치	48

4.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의견	50
5. 토지사용 규제 찬반	52
6.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강화가 필요한 주제	54
7.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	56
8.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	58
9. 희망하는 농촌계획 수립 내용	60
10. 마을 공동시설 필요 여부	62
11. 마을에 필요한 공동시설	64
제5장 조사 결과 요약	65

부록

설문조사표-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 주민 대상 조사	71
---------------------------------------	----

제1장

〈표 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
---------------------------	---

제2장

〈표 2-1〉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에 대한 응답자 특성	11
〈표 2-2〉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대한 응답자 특성	13
〈표 2-3〉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이유에 대한 응답자 특성	15
〈표 2-4〉 살고 있는 지역이 살기 나빠진 이유에 대한 응답자 특성	17
〈표 2-5〉 농촌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응답자 특성	19
〈표 2-6〉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에 대한 응답자 특성	21
〈표 2-7〉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응답자 특성	24
〈표 2-8〉 살고 있는 지역의 장점에 대한 응답자 특성	26
〈표 2-9〉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자 특성	28
〈표 2-10〉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에 대한 응답자 특성	30

제3장

〈표 3-1〉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에 대한 응답자 특성	37
〈표 3-2〉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 때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자 특성	39

제4장

〈표 4-1〉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	44
〈표 4-2〉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계획 필요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	47
〈표 4-3〉 농촌계획 수립 시 우선되는 가치에 대한 응답자 특성	49

〈표 4-4〉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	51
〈표 4-5〉 토지사용 규제 찬반에 대한 응답자 특성	53
〈표 4-6〉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강화가 필요한 주체에 대한 응답자 특성	55
〈표 4-7〉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에 대한 응답자 특성	57
〈표 4-8〉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자 특성	59
〈표 4-9〉 희망하는 농촌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응답자 특성	61
〈표 4-10〉 마을 공동시설 필요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	63
〈표 4-11〉 마을에 필요한 공동시설(중복응답)	64

제2장

〈그림 2-1〉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	10
〈그림 2-2〉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12
〈그림 2-3〉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이유	14
〈그림 2-4〉 살고 있는 지역이 살기 나빠진 이유	16
〈그림 2-5〉 농촌경관의 아름다움	18
〈그림 2-6〉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	20
〈그림 2-7〉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	23
〈그림 2-8〉 살고 있는 지역의 장점	25
〈그림 2-9〉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27
〈그림 2-10〉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29

제3장

〈그림 3-1〉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	36
〈그림 3-2〉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 때 애로사항	38

제4장

〈그림 4-1〉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44
〈그림 4-2〉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계획 필요 여부	46
〈그림 4-3〉 농촌계획 수립 시 우선되는 가치	48
〈그림 4-4〉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의견	50
〈그림 4-5〉 토지사용 규제 찬반에 대한 의견	52
〈그림 4-6〉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강화가 필요한 주체에 대한 의견	54

〈그림 4-7〉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에 대한 의견	56
〈그림 4-8〉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에 대한 의견	58
〈그림 4-9〉 희망하는 농촌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의견	60
〈그림 4-10〉 마을 공동시설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62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실제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계획 수립을 위해 중요함. 이를 위해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 유형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등에 관련한 의견을 수렴, 시·군의 문제점에 대한 현황, 현행 농촌계획제도 정비 방향과 개선점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는 농촌 계획을 통한 계획적 정비 및 주민 필요 시설과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임. 이를 통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농촌 공간계획 수요를 파악하고, 농촌 유형별(읍면 소재지에서의 거리)로 나타나는 주민들의 인식 차이 및 주민 필요 시설의 차이 등을 파악할 수 있음.

2.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표본 수	➡	▪ 총 1,412명(읍: 679개, 면: 733개)
표본 오차	➡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 오차 $\pm 2.61\%$ Point
조사 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CATI) 실시
표본 추출	➡	▪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 1단계: 전국 광역시도 중 조사 제외 대상 광역시 제외 - 2단계: 조사 대상 도별 읍/면 할당
조사 기간	➡	▪ 2019년 9월 23일(월) ~ 10월 1일(화)

3. 응답자 특성

표 1-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사례 수	비율(%)
■ 전 체 ■		1,412	100.0
읍면지역	읍지역	679	48.1
	면지역	733	51.9
거주지역	경기도	107	7.6
	강원도	129	9.1
	충청북도	127	9.0
	충청남도	184	13.0
	전라북도	160	11.3
	전라남도	226	16.0
	경상북도	216	15.3
	경상남도	206	14.6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제주도	57	4.0
	5분 이내	617	43.7
	10분 이내	425	30.1
	30분 이내	332	23.5
	30분 이상	31	2.2
거주기간	모름/무응답	7	0.5
	1년 미만	18	1.3
	1~5년 미만	60	4.2
	5~10년 미만	115	8.1
	10~20년 미만	192	13.6
귀농귀촌 여부	20년 이상	1,027	72.7
	귀농귀촌	240	17.0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15.9
직업	귀농귀촌 안 함	947	67.1
	농/임/어업	598	42.4
	자영업	160	11.3
	사무/관리직	181	12.8
	생산/기능/노무직	76	5.4
	주부	162	11.5
	학생	34	2.4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기타	201	14.2
	살기 좋아짐	522	37.0
	변화없이 유지	647	45.8
	살기 나빠짐	243	17.2

제2장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2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

○ 조사문항 Q01.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의 모습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1순위: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55.7%

2순위: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55.0%

○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라는 응답이 55.7%,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가 55.0%, 두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라는 응답은 면지역, 전라북도, 전라남도, 읍면소재지까지 30분 이내, 귀농귀촌 안함, 농/임/어업,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없이 유지됨 등에서 특히 높고,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응답은 면지역, 경상북도, 거주기간 1년 미만 및 20년 이상, 귀농귀촌 안함, 농/임/어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농사 외의 일을 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이다’가 23.8%, ‘도시민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다’가 19.6%, ‘도시화 되고 있는 지역이다’가 16.7%, ‘관광지가 개발되어 민박집이나 음식점이 많은지역이다’가 13.3%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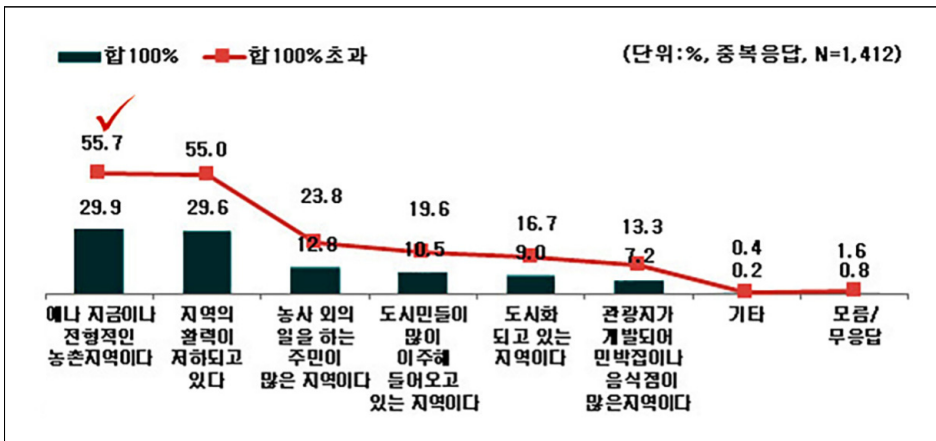


표 2-1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예나 지금이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인구 감소로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농사 외의 일을 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이다	도시민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다	도시화 되고 있는 지역이다	관광지가 개발되어 민박집이나 음식점이 많은 지역이다	기타	모름/무응답
■ 전 체 ■		1,412	55.7	55.0	23.8	19.6	16.7	13.3	0.4	1.6
읍면지역	읍지역	679	47.3	51.5	36.2	19.4	21.4	15.9	0.3	1.8
	면지역	733	63.6	58.3	12.3	19.8	12.4	10.9	0.5	1.4
거주지역	경기도	107	36.4	30.8	36.4	36.4	31.8	7.5	1.9	1.9
	강원도	129	46.5	58.1	24.8	21.7	13.2	22.5	0.0	0.8
	충청북도	127	51.2	56.7	26.8	20.5	17.3	11.0	0.8	2.4
	충청남도	184	58.2	61.4	27.7	12.0	16.8	14.1	0.0	1.6
	전라북도	160	63.1	60.0	15.6	13.1	10.6	8.8	0.0	0.0
	전라남도	226	65.9	60.2	20.8	20.4	16.8	18.1	0.0	0.4
	경상북도	216	61.6	62.5	18.5	13.9	11.1	7.9	0.5	1.9
	경상남도	206	49.5	48.1	24.8	20.9	20.9	12.6	1.0	3.4
	제주도	57	54.4	31.6	29.8	38.6	17.5	22.8	0.0	1.8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51.1	53.6	31.0	18.8	20.7	17.3	0.5	0.6
	10분 이내	425	58.4	56.7	18.4	22.1	15.1	10.6	0.0	1.9
	30분 이내	332	62.0	57.8	18.1	18.1	11.4	10.5	0.3	2.1
	30분 이상	31	48.4	35.5	16.1	22.6	19.4	3.2	6.5	6.5
	모름/무응답	7	42.9	28.6	28.6	0.0	0.0	0.0	0.0	14.3
거주기간	1년 미만	18	27.8	61.1	11.1	22.2	11.1	22.2	0.0	0.0
	1~5년 미만	60	33.3	50.0	26.7	15.0	11.7	13.3	1.7	5.0
	5~10년 미만	115	45.2	39.1	28.7	24.3	20.0	10.4	0.9	0.9
	10~20년 미만	192	41.1	41.7	33.9	23.4	25.5	15.6	0.0	2.6
	20년 이상	1,027	61.4	59.5	21.4	18.6	15.1	13.0	0.4	1.3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44.6	42.5	28.3	25.4	21.3	16.7	0.8	2.5
	타농촌 지역에서 이주	225	52.0	50.2	30.2	20.0	18.7	13.3	0.0	1.3
	귀농귀촌 안 함	947	59.5	59.3	21.1	18.1	15.1	12.5	0.4	1.4
직업	농/임/어업	598	71.2	63.2	13.7	16.7	10.7	9.4	0.2	2.0
	자영업	160	34.4	48.1	38.8	23.8	21.3	20.0	0.6	0.0
	사무/관리직	181	40.3	49.7	35.9	24.9	23.8	19.3	0.6	1.1
	생산/기능/ 노무직	76	42.1	39.5	28.9	23.7	26.3	14.5	0.0	3.9
	주부	162	51.2	51.2	24.1	22.2	17.9	18.5	1.2	1.2
	학생	34	26.5	38.2	38.2	14.7	35.3	14.7	0.0	5.9
	기타	201	54.2	52.7	26.4	17.4	16.9	9.5	0.5	0.5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52.9	43.5	27.8	28.5	23.2	17.2	0.4	1.1
	변화없이 유지	647	60.3	59.2	21.9	14.5	12.2	9.9	0.5	2.3
	살기 나빠짐	243	49.8	68.7	20.2	14.0	14.8	14.0	0.4	0.4

2.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 조사문항 Q02. 선생님께서 현재 사시고 계신 지역(시·군)은 예전에 비해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45.8%

2순위: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 37.0%

○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결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으로,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가 37.0%, ‘전반적으로 살기 나빠졌다’가 17.2% 순으로 나타남.

-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응답은 면지역, 충청남도 등에서 특히 높고,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라는 응답은 전라남도과 강원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2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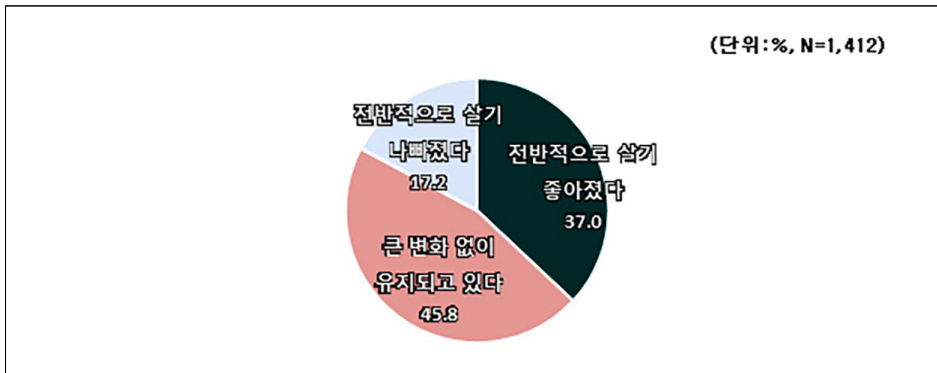


표 2-2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살기 나빠졌다
■ 전 체 ■		1,412	45.8	37.0	17.2
읍면지역	읍지역	679	42.4	37.8	19.7
	면지역	733	49.0	36.2	14.9
거주지역	경기도	107	43.0	39.3	17.8
	강원도	129	42.6	44.2	13.2
	충청북도	127	51.2	36.2	12.6
	충청남도	184	53.8	28.8	17.4
	전라북도	160	45.6	40.6	13.8
	전라남도	226	41.6	45.1	13.3
	경상북도	216	43.5	29.6	26.9
	경상남도	206	49.0	33.5	17.5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제주도	57	35.1	42.1	22.8
	5분 이내	617	46.0	37.0	17.0
	10분 이내	425	46.1	36.5	17.4
	30분 이내	332	45.5	37.7	16.9
	30분 이상	31	45.2	32.3	22.6
거주기간	모름/무응답	7	28.6	57.1	14.3
	1년 미만	18	50.0	38.9	11.1
	1~5년 미만	60	46.7	41.7	11.7
	5~10년 미만	115	47.8	39.1	13.0
	10~20년 미만	192	48.4	39.6	12.0
귀농귀촌 여부	20년 이상	1,027	45.0	35.9	19.1
	귀농귀촌	240	46.3	38.3	15.4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48.4	35.6	16.0
직업	귀농귀촌 안 함	947	45.1	37.0	18.0
	농/임/어업	598	47.2	36.1	16.7
	자영업	160	40.6	36.9	22.5
	사무/관리직	181	43.1	43.1	13.8
	생산/기능/노무직	76	43.4	43.4	13.2
	주부	162	52.5	32.7	14.8
	학생	34	55.9	38.2	5.9
	기타	201	42.3	34.8	22.9

2.1.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이유

○ 조사문항 Q02-1. (Q02번 ①번 응답자만)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선택 가능)

1순위: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 71.5%

2순위: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 25.1%

○ 살고 있는 지역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응답자(N=522)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도로 및 기초인프라가 정비되어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라는 응답이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라는 응답은 사무/관리직에서 특히 높았음.

○ 그다음으로,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가 25.1%, ‘자연보호 활동 및 친환경 농업 등을 통해 자연환경이 좋아졌다’가 22.8%, ‘농업 이외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가 18.6%, ‘귀촌 등으로 인해 지역에 사람들이 늘어났다’가 16.1% 순으로 나타남.

-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라는 응답은 읍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3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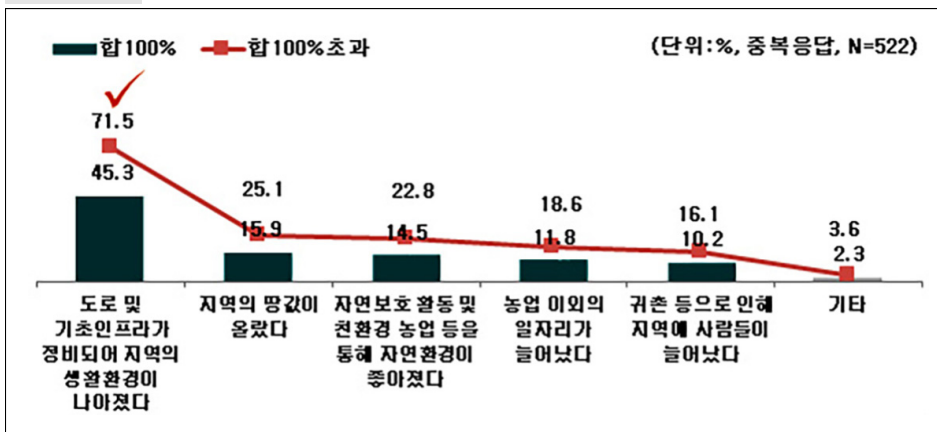


표 2-3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 이유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도로 및 기초 인프라가 정 비되어 지역 의 생활환경 이 나아졌다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	자연보호 활 동 및 친환경 농업 등을 통 해 자연환경 이 좋아졌다	농업 이 외의 일 자리가 늘어 났다	귀촌 등으로 인해 지역에 사람들이 늘 어났다	기타
■ 전 체 ■		522	71.5	25.1	22.8	18.6	16.1	3.6
읍면지역	읍지역	257	74.3	30.0	22.6	19.8	16.7	1.9
	면지역	265	68.7	20.4	23.0	17.4	15.5	5.3
거주지역	경기도	42	81.0	31.0	7.1	21.4	23.8	2.4
	강원도	57	80.7	21.1	24.6	8.8	14.0	3.5
	충청북도	46	71.7	19.6	39.1	21.7	17.4	0.0
	충청남도	53	71.7	22.6	22.6	18.9	9.4	3.8
	전라북도	65	64.6	26.2	23.1	23.1	18.5	3.1
	전라남도	102	66.7	22.5	22.5	20.6	15.7	6.9
	경상북도	64	75.0	21.9	18.8	17.2	10.9	3.1
	경상남도	69	72.5	31.9	23.2	11.6	13.0	4.3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제주도	24	58.3	37.5	25.0	33.3	37.5	0.0
	5분 이내	228	73.7	25.9	21.9	20.6	17.5	4.8
	10분 이내	155	72.9	26.5	20.6	17.4	16.1	1.9
	30분 이내	125	66.4	24.0	26.4	16.0	12.0	4.0
	30분 이상	10	50.0	10.0	30.0	20.0	40.0	0.0
거주기간	모름/무응답	4	100.0	0.0	25.0	25.0	0.0	0.0
	1년 미만	7	71.4	14.3	57.1	14.3	0.0	0.0
	1~5년 미만	25	84.0	20.0	12.0	12.0	24.0	0.0
	5~10년 미만	45	77.8	15.6	20.0	13.3	13.3	2.2
	10~20년 미만	76	75.0	30.3	17.1	19.7	17.1	3.9
귀농귀촌 여부	20년 이상	369	69.1	25.7	24.4	19.5	16.0	4.1
	귀농귀촌	92	68.5	21.7	22.8	16.3	18.5	3.3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80	76.3	26.3	17.5	13.8	12.5	3.8
직업	귀농귀촌 안 함	350	71.1	25.7	24.0	20.3	16.3	3.7
	농/임/어업	216	67.6	26.4	29.6	18.1	15.3	5.1
	자영업	59	79.7	28.8	13.6	16.9	15.3	5.1
	사무/관리직	78	83.3	21.8	14.1	17.9	12.8	0.0
	생산/기능/노무직	33	66.7	27.3	18.2	18.2	9.1	3.0
	주부	53	62.3	34.0	20.8	17.0	28.3	3.8
	학생	13	92.3	7.7	7.7	30.8	23.1	0.0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기타	70	68.6	17.1	25.7	21.4	15.7	2.9
	살기 좋아짐	522	71.5	25.1	22.8	18.6	16.1	3.6
	변화없이 유지	0	0.0	0.0	0.0	0.0	0.0	0.0
	살기 나빠짐	0	0.0	0.0	0.0	0.0	0.0	0.0

2.2. 살고 있는 지역이 살기 나빠진 이유

○ Q02-2. (Q02번 ②번 응답자만) 예전보다 살기 나빠졌다고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선택 가능)

1순위: 지역에 사람이 없다 51.9%

2순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30.9%

○ 살고 있는 지역이 예전보다 살기 나빠졌다는 응답자(N=243)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사람들이 늘고 많이 돌아가셔서, 지역에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에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은 전라북도 거주, 거주기간 20년 이상, 지역 원주민의 경우 특히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가 30.9%, ‘하천이 오염되고 공기가 나빠지는 등 자연환경이 나빠졌다’가 18.1%, ‘외지인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인심이 나빠졌다’가 9.5%, ‘주변이 개발되면서 마을의 농촌다운 풍경이 바뀌었다’가 9.1% 순으로 나타남.

-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응답은 강원도 거주, 귀농귀촌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4 살고 있는 지역이 살기 나빠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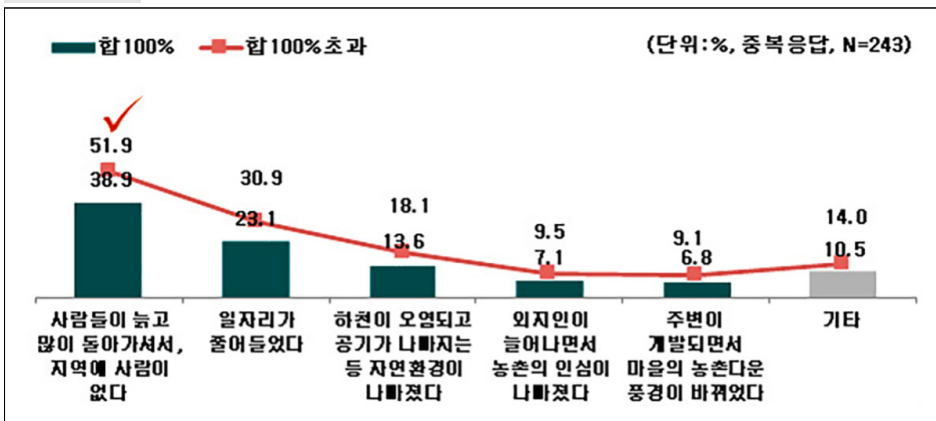


표 2-4 살고 있는 지역이 살기 나빠진 이유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사람들이 높고 많이 돌아가서, 지역에 사람이 없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하천이 오염되고 공기가 나빠지는 등 자연환경이 나빠졌다	외지인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인심이 나빠졌다	주변이 개발되면서 마을의 농촌다운 풍경이 바뀌었다	기타
■ 전 체 ■		243	51.9	30.9	18.1	9.5	9.1	14.0
읍면지역	읍지역	134	50.7	35.8	18.7	11.9	8.2	17.2
	면지역	109	53.2	24.8	17.4	6.4	10.1	10.1
거주지역	경기도	19	21.1	31.6	31.6	31.6	15.8	21.1
	강원도	17	35.3	70.6	5.9	11.8	0.0	5.9
	충청북도	16	62.5	12.5	18.8	12.5	0.0	12.5
	충청남도	32	53.1	37.5	15.6	3.1	6.3	6.3
	전라북도	22	77.3	13.6	18.2	4.5	18.2	9.1
	전라남도	30	63.3	23.3	16.7	6.7	0.0	10.0
	경상북도	58	51.7	31.0	19.0	6.9	8.6	15.5
	경상남도	36	52.8	33.3	11.1	2.8	13.9	22.2
	제주도	13	30.8	23.1	38.5	30.8	23.1	23.1
읍면소재지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105	48.6	35.2	15.2	9.5	6.7	15.2
	10분 이내	74	56.8	31.1	17.6	10.8	14.9	6.8
	30분 이내	56	51.8	23.2	23.2	7.1	7.1	21.4
	30분 이상	7	57.1	14.3	28.6	14.3	0.0	14.3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거주기간	1년 미만	2	0.0	50.0	50.0	0.0	0.0	0.0
	1~5년 미만	7	42.9	28.6	14.3	14.3	42.9	0.0
	5~10년 미만	15	33.3	46.7	13.3	0.0	0.0	13.3
	10~20년 미만	23	21.7	34.8	21.7	8.7	8.7	21.7
	20년 이상	196	57.7	29.1	17.9	10.2	8.7	13.8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37	43.2	48.6	13.5	2.7	8.1	5.4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36	36.1	38.9	22.2	8.3	8.3	11.1
	귀농귀촌 안 함	170	57.1	25.3	18.2	11.2	9.4	16.5
직업	농/임/어업	100	56.0	24.0	17.0	9.0	10.0	19.0
	자영업	36	41.7	44.4	5.6	5.6	2.8	22.2
	사무/관리직	25	56.0	32.0	32.0	4.0	12.0	8.0
	생산/기능/노무직	10	50.0	40.0	30.0	10.0	30.0	0.0
	주부	24	41.7	29.2	25.0	16.7	16.7	8.3
	학생	2	0.0	50.0	50.0	0.0	0.0	0.0
	기타	46	56.5	32.6	15.2	13.0	2.2	6.5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0	0.0	0.0	0.0	0.0	0.0	0.0
	변화없이 유지	0	0.0	0.0	0.0	0.0	0.0	0.0
	살기 나빠짐	243	51.9	30.9	18.1	9.5	9.1	14.0

3. 농촌경관의 아름다움

○ 조사문항 Q03. 선생님께서는 지역(시·군)의 ‘농촌경관’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경관이 아름답다 47.5% > 아름답지 않다 11.9%

○ 농촌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47.5%(매우 그렇다 16.1%, 그렇다 31.4%),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1.9%(전혀 그렇지 않다 3.0%, 그렇지 않다 8.9%)로 농촌경관이 아름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렇다’라는 응답은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귀농귀촌인, 살고있는 지역이 살기 좋아졌다고 인식한 농촌 주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경기도 거주, 거주 지역이 살기 나빠졌다고 인식한 농촌 주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5 농촌경관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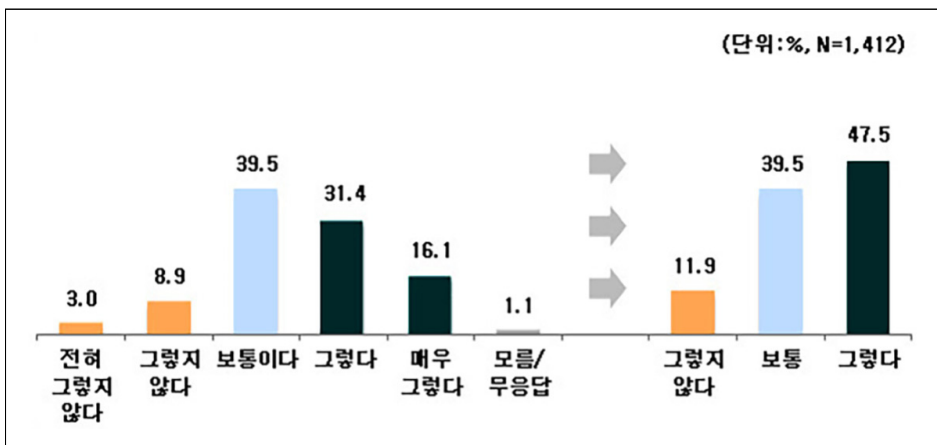


표 2-5 농촌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 전 체 ■		1,412	3.0	8.9	39.5	31.4	16.1	1.1	11.9	39.5	47.5
읍면지역	읍지역	679	2.8	8.4	38.7	32.3	17.1	0.7	11.2	38.7	49.3
	면지역	733	3.1	9.4	40.2	30.7	15.1	1.4	12.6	40.2	45.8
거주지역	경기도	107	7.5	14.0	41.1	28.0	8.4	0.9	21.5	41.1	36.4
	강원도	129	1.6	5.4	38.0	40.3	14.0	0.8	7.0	38.0	54.3
	충청북도	127	2.4	9.4	39.4	29.9	17.3	1.6	11.8	39.4	47.2
	충청남도	184	1.6	12.0	45.1	26.6	14.7	0.0	13.6	45.1	41.3
	전라북도	160	3.8	8.8	35.6	38.8	11.9	1.3	12.5	35.6	50.6
	전라남도	226	3.5	7.1	37.6	32.7	17.7	1.3	10.6	37.6	50.4
	경상북도	216	3.2	7.9	42.6	31.9	13.0	1.4	11.1	42.6	44.9
	경상남도	206	1.5	9.2	36.4	28.2	23.3	1.5	10.7	36.4	51.5
	제주도	57	3.5	7.0	40.4	21.1	28.1	0.0	10.5	40.4	49.1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2.6	7.8	37.4	33.9	17.7	0.6	10.4	37.4	51.5
	10분 이내	425	2.8	10.4	41.2	30.6	13.9	1.2	13.2	41.2	44.5
	30분 이내	332	3.6	9.0	41.6	28.9	15.4	1.5	12.7	41.6	44.3
	30분 이상	31	6.5	9.7	25.8	29.0	25.8	3.2	16.1	25.8	54.8
	모름/무응답	7	0.0	14.3	85.7	0.0	0.0	0.0	14.3	85.7	0.0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6	11.1	44.4	22.2	16.7	0.0	16.7	44.4	38.9
	1~5년 미만	60	3.3	5.0	46.7	23.3	20.0	1.7	8.3	46.7	43.3
	5~10년 미만	115	5.2	7.0	31.3	29.6	26.1	0.9	12.2	31.3	55.7
	10~20년 미만	192	3.1	8.9	41.7	30.7	15.1	0.5	12.0	41.7	45.8
	20년 이상	1,027	2.6	9.3	39.5	32.4	14.9	1.2	12.0	39.5	47.3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2.9	7.5	35.0	30.4	23.3	0.8	10.4	35.0	53.8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4.0	7.1	41.3	31.6	15.6	0.4	11.1	41.3	47.1
	귀농귀촌 안 함	947	2.7	9.7	40.2	31.7	14.4	1.3	12.5	40.2	46.0
직업	농/임/어업	598	2.5	11.0	37.1	32.3	16.1	1.0	13.5	37.1	48.3
	자영업	160	3.1	9.4	40.0	28.8	18.1	0.6	12.5	40.0	46.9
	사무/관리직	181	3.9	5.0	37.0	33.1	20.4	0.6	8.8	37.0	53.6
	생산/기능/ 노무직	76	5.3	9.2	47.4	26.3	11.8	0.0	14.5	47.4	38.2
	주부	162	2.5	4.3	45.1	30.2	15.4	2.5	6.8	45.1	45.7
	학생	34	0.0	5.9	50.0	35.3	8.8	0.0	5.9	50.0	44.1
	기타	201	3.5	10.0	39.3	31.8	13.9	1.5	13.4	39.3	45.8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2.1	6.1	31.8	36.2	22.4	1.3	8.2	31.8	58.6
	변화없이 유지	647	2.8	9.7	46.2	27.7	12.5	1.1	12.5	46.2	40.2
	살기 나빠짐	243	5.3	12.8	38.3	31.3	11.9	0.4	18.1	38.3	43.2

4.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

○ 조사문항 Q04. 선생님께서는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61.8% > 없다 9.8%

○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라는 응답이 61.8%(매우 그렇다 26.1%, 그렇지 않다 35.8%),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9.8%(전혀 그렇지 않다 2.1%, 그렇지 않다 7.7%)로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렇다’라는 응답은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거주기간 10~20년 미만, 사무/관리직, 거주 지역이 살기 좋아졌다고 인식한 농촌 주민에서 특히 높음.
-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경기도 거주, 읍면소재지까지 30분 이상, 거주 지역이 살기 나빠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농촌 주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6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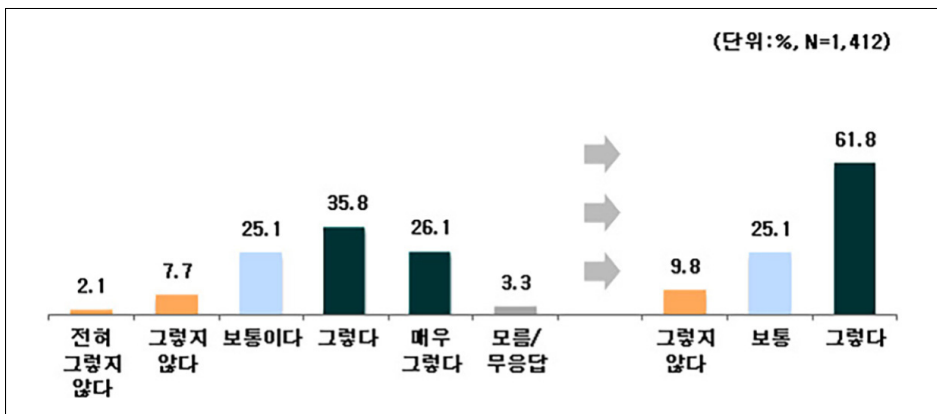


표 2-6 농촌경관을 보존할 가치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 전 체 ■		1,412	2.1	7.7	25.1	35.8	26.1	3.3	9.8	25.1	61.8
읍면지역	읍지역	679	1.5	7.5	24.7	35.9	27.5	2.8	9.0	24.7	63.5
	면지역	733	2.6	7.9	25.4	35.6	24.7	3.8	10.5	25.4	60.3
거주지역	경기도	107	1.9	15.9	27.1	34.6	16.8	3.7	17.8	27.1	51.4
	강원도	129	2.3	9.3	27.9	36.4	21.7	2.3	11.6	27.9	58.1
	충청북도	127	1.6	4.7	22.8	33.9	30.7	6.3	6.3	22.8	64.6
	충청남도	184	1.6	6.5	28.8	38.6	22.8	1.6	8.2	28.8	61.4
	전라북도	160	2.5	8.8	28.1	30.6	27.5	2.5	11.3	28.1	58.1
	전라남도	226	1.3	7.5	24.3	34.5	28.3	4.0	8.8	24.3	62.8
	경상북도	216	2.8	6.5	22.7	39.8	25.5	2.8	9.3	22.7	65.3
	경상남도	206	2.9	7.3	23.3	35.4	27.7	3.4	10.2	23.3	63.1
	제주도	57	0.0	3.5	17.5	36.8	36.8	5.3	3.5	17.5	73.7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1.9	7.3	23.3	36.8	28.0	2.6	9.2	23.3	64.8
	10분 이내	425	2.1	7.3	23.3	34.8	28.7	3.8	9.4	23.3	63.5
	30분 이내	332	1.8	8.4	29.8	37.0	19.3	3.6	10.2	29.8	56.3
	30분 이상	31	6.5	16.1	29.0	19.4	22.6	6.5	22.6	29.0	41.9
	모름/무응답	7	0.0	0.0	42.9	14.3	28.6	14.3	0.0	42.9	42.9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6	0.0	33.3	44.4	16.7	0.0	5.6	33.3	61.1
	1~5년 미만	60	3.3	5.0	23.3	41.7	26.7	0.0	8.3	23.3	68.3
	5~10년 미만	115	2.6	6.1	23.5	33.0	33.0	1.7	8.7	23.5	66.1
	10~20년 미만	192	0.5	5.7	19.8	42.7	27.6	3.6	6.3	19.8	70.3
	20년 이상	1,027	2.1	8.6	26.2	34.3	25.1	3.7	10.7	26.2	59.4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1.7	6.7	24.6	35.0	29.6	2.5	8.3	24.6	64.6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1.8	6.2	24.4	38.7	26.7	2.2	8.0	24.4	65.3
	귀농귀촌 안 함	947	2.2	8.3	25.3	35.3	25.0	3.8	10.6	25.3	60.3
직업	농/임/어업	598	3.2	7.5	25.8	35.3	25.4	2.8	10.7	25.8	60.7
	자영업	160	1.3	6.9	24.4	35.0	29.4	3.1	8.1	24.4	64.4
	사무/관리직	181	0.6	4.4	21.0	37.6	35.9	0.6	5.0	21.0	73.5
	생산/기능/ 노무직	76	1.3	11.8	27.6	31.6	23.7	3.9	13.2	27.6	55.3
	주부	162	0.6	7.4	27.2	37.7	19.1	8.0	8.0	27.2	56.8
	학생	34	0.0	8.8	23.5	47.1	20.6	0.0	8.8	23.5	67.6
	기타	201	2.5	10.4	24.9	34.3	23.9	4.0	12.9	24.9	58.2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1.3	4.2	24.3	37.7	29.9	2.5	5.6	24.3	67.6
	변화없이 유지	647	1.9	9.1	26.3	35.5	23.8	3.4	11.0	26.3	59.4
	살기 나빠짐	243	4.1	11.5	23.5	32.1	23.9	4.9	15.6	23.5	56.0

5.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

○ 조사문항 Q05.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시·군)에서는 다음 중 어떠한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빈번한 개발사례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별다른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45.9%

2순위: 아파트, 전원마을 등 주택지개발 25.8%

○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에 대해 살펴본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별다른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별다른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면지역, 경상북도 거주, 읍면 소재지까지 10분 이내, 30분 이내, 거주기간 20년 이상, 원주민, 농/임/어업 종사자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아파트, 전원마을 등 주택지 개발’이 25.8%,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시설 개발’이 16.9%,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단지 개발’이 14.0%, ‘민박, 음식점, 호텔 등 관광시설 개발’이 13.7%, ‘농지조성, 휴양림 조성 등 농산업 개발’이 11.9% 순으로 나타남.

- ‘아파트, 전원마을 등 주택지 개발’이라는 응답은 읍지역, 경기도 및 강원도 거주,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거주기간 5~20년 미만, 귀농귀촌인, 학생 및 사무/관리직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7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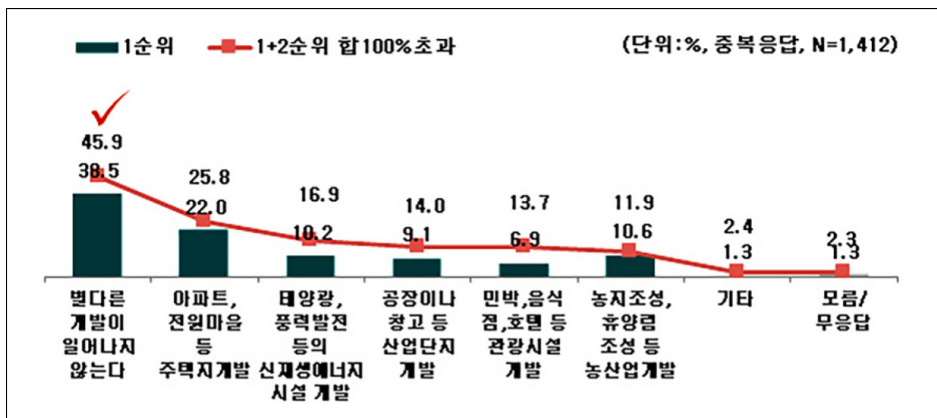


표 2-7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별다른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파트, 전원 마을 등 주택지 개발	태양광, 풍력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개발	공장이나 창고 등 산업단지 개발	민박, 음식점, 호텔 등 관광시설 개발	농지 조성, 휴양림 조성 등 농산업 개발	기타	모름/무응답
■ 전 체 ■		1,412	45.9	25.8	16.9	14.0	13.7	11.9	2.4	2.3
읍면지역	읍지역	679	37.0	38.0	16.9	13.7	16.3	12.2	2.4	1.9
	면지역	733	54.2	14.6	16.8	14.2	11.2	11.6	2.5	2.7
거주지역	경기도	107	33.6	42.1	5.6	35.5	10.3	9.3	2.8	1.9
	강원도	129	39.5	37.2	15.5	7.8	18.6	14.0	0.8	3.1
	충청북도	127	39.4	24.4	17.3	26.0	13.4	10.2	0.8	2.4
	충청남도	184	50.0	23.4	16.3	17.9	12.0	11.4	2.2	1.1
	전라북도	160	53.8	21.3	18.1	9.4	7.5	12.5	3.8	3.1
	전라남도	226	43.8	23.9	25.2	6.6	18.6	12.8	0.4	1.8
	경상북도	216	55.6	16.2	17.1	8.8	8.8	13.4	4.2	3.2
	경상남도	206	44.7	27.2	12.1	16.0	14.6	10.7	3.9	1.9
	제주도	57	38.6	33.3	21.1	1.8	28.1	10.5	1.8	3.5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37.1	33.2	17.2	15.6	17.0	11.2	2.8	1.8
	10분 이내	425	50.8	21.9	16.0	13.4	12.2	12.5	2.1	2.6
	30분 이내	332	55.1	17.5	17.5	11.7	9.9	13.6	1.8	2.7
	30분 이상	31	51.6	25.8	16.1	16.1	9.7	3.2	3.2	3.2
	모름/무응답	7	57.1	14.3	14.3	0.0	0.0	0.0	14.3	14.3
거주기간	1년 미만	18	11.1	22.2	27.8	33.3	27.8	22.2	5.6	0.0
	1~5년 미만	60	43.3	36.7	10.0	18.3	21.7	5.0	1.7	5.0
	5~10년 미만	115	38.3	38.3	16.5	14.8	8.7	13.9	2.6	0.0
	10~20년 미만	192	33.9	39.1	15.1	17.2	21.4	12.0	1.6	1.6
	20년 이상	1,027	49.8	21.4	17.4	12.7	12.1	11.9	2.5	2.6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36.7	36.3	16.3	13.3	19.2	9.6	3.3	1.7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44.4	29.8	14.2	18.2	11.1	13.3	1.3	2.7
	귀농귀촌 안 함	947	48.6	22.3	17.6	13.1	12.9	12.1	2.4	2.4
직업	농/임/어업	598	54.0	13.4	20.9	11.5	9.9	12.2	2.3	2.2
	자영업	160	35.6	38.1	13.8	19.4	18.8	10.0	2.5	1.3
	사무/관리직	181	27.1	43.1	14.9	20.4	22.7	17.7	2.2	3.9
	생산/기능/ 노무직	76	36.8	36.8	13.2	23.7	15.8	5.3	1.3	2.6
	주부	162	44.4	35.8	17.9	9.3	12.3	8.6	2.5	1.2
	학생	34	38.2	47.1	5.9	11.8	29.4	11.8	0.0	2.9
	기타	201	52.7	21.9	11.4	11.4	10.4	12.4	3.5	3.0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34.5	33.9	16.3	15.1	19.0	15.9	3.1	2.1
	변화없이 유지	647	53.3	21.8	15.5	13.8	10.8	10.5	1.7	3.1
	살기 나빠짐	243	50.6	19.3	21.8	11.9	9.9	7.0	2.9	0.8

6. 살고 있는 지역의 장점

○ 조사문항 Q06. 선생님께서는 현재 사시는 지역(시·군)의 가장 좋은 점 혹은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점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잘 보전된 농촌경관과 자연환경 44.8%

2순위: 불편함 없는 사회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19.8%

○ 살고 있는 지역의 장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잘 보전된 농촌경관과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잘 보전된 농촌경관과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은 면지역, 강원도 및 전라북도 거주, 읍면소재지까지 30분 이내, 농/임/어업 종사자 등에서 특히 높음.

○ 그다음으로, ‘불편함 없는 사회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가 19.8%, ‘양호한 주택시설’이 16.5%, ‘새로운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의 활력’이 11.4%, ‘주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활력’이 8.4% 순으로 나타남.

- ‘불편함 없는 사회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라는 응답은 읍지역,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거주 지역이 살기 좋아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농촌 주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8 살고 있는 지역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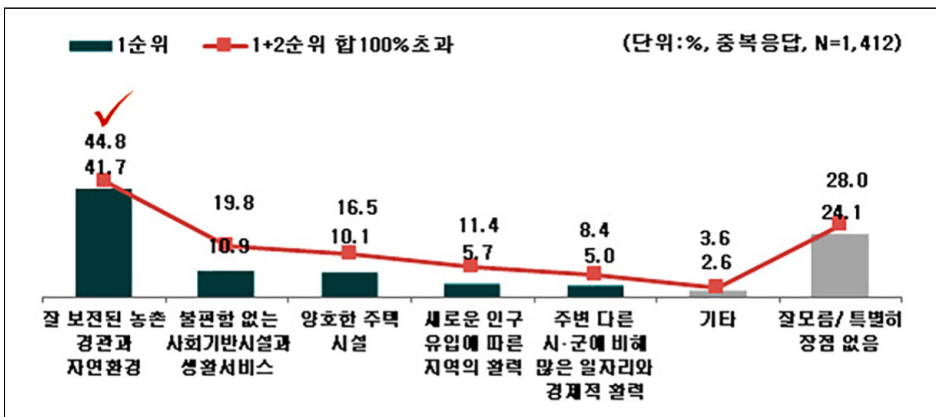


표 2-8 살고 있는 지역의 장점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잘 보전된 농촌 경관과 자연환경	불편함 없는 사회기반 시설과 생활서비스	양호한 주택 시설	새로운 인구 유입 에 따른 지역의 활력	주변 다른 시·군에 비 해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활력	기타	잘모름/ 특별히 장점 없음
■ 전 체 ■		1,412	44.8	19.8	16.5	11.4	8.4	3.6	28.0
읍면지역	읍지역	679	40.9	23.1	21.5	13.0	9.4	2.5	26.2
	면지역	733	48.3	16.6	11.9	10.0	7.5	4.6	29.6
거주지역	경기도	107	28.0	22.4	22.4	16.8	12.1	4.7	25.2
	강원도	129	53.5	23.3	18.6	12.4	6.2	2.3	21.7
	충청북도	127	43.3	22.0	15.7	10.2	10.2	5.5	23.6
	충청남도	184	41.3	20.7	16.8	10.9	9.8	1.1	28.8
	전라북도	160	55.0	15.6	14.4	7.5	9.4	3.8	31.3
	전라남도	226	42.9	19.9	19.9	8.8	8.0	3.5	28.8
	경상북도	216	48.6	19.4	12.5	9.7	6.9	4.2	29.6
	경상남도	206	41.3	17.5	15.5	14.6	7.8	4.9	29.6
	제주도	57	47.4	19.3	12.3	19.3	5.3	1.8	29.8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44.1	22.9	17.2	11.3	10.2	2.8	25.1
	10분 이내	425	41.9	17.4	17.6	10.4	7.8	4.2	31.1
	30분 이내	332	50.6	17.2	14.5	12.0	6.0	3.6	28.9
	30분 이상	31	38.7	19.4	12.9	19.4	6.5	9.7	29.0
	모름/무응답	7	28.6	14.3	0.0	14.3	14.3	14.3	42.9
거주기간	1년 미만	18	33.3	11.1	22.2	33.3	16.7	5.6	16.7
	1~5년 미만	60	43.3	18.3	15.0	16.7	1.7	3.3	26.7
	5~10년 미만	115	41.7	22.6	22.6	13.9	7.0	2.6	22.6
	10~20년 미만	192	47.4	20.3	22.9	14.1	12.5	4.7	20.3
	20년 이상	1,027	44.9	19.6	14.6	9.9	8.1	3.5	30.3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45.4	17.1	19.6	15.4	9.6	3.3	25.0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41.8	21.8	21.8	9.3	6.7	2.2	25.8
	귀농귀촌 안 함	947	45.3	20.0	14.5	10.9	8.6	4.0	29.3
직업	농/임/어업	598	48.7	18.9	10.0	9.4	8.4	3.8	28.8
	자영업	160	41.9	17.5	19.4	15.6	10.0	3.1	28.8
	사무/관리직	181	45.9	24.9	24.9	15.5	8.3	1.1	19.9
	생산/기능/ 노무직	76	38.2	19.7	23.7	11.8	10.5	5.3	26.3
	주부	162	43.2	19.1	21.6	11.7	7.4	1.9	30.2
	학생	34	47.1	29.4	29.4	20.6	14.7	0.0	11.8
	기타	201	37.8	18.4	16.9	8.5	6.5	7.0	33.8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46.7	26.8	22.2	17.8	13.6	4.2	14.0
	변화없이 유지	647	46.2	16.5	14.4	7.6	5.1	3.2	34.3
	살기 나빠짐	243	36.6	13.2	9.9	7.8	6.2	3.3	41.2

7.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 조사문항 Q07. 선생님께서 현재 사시는 지역(시·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인구감소/고령화 60.3%

2순위: 미개발/저개발(낙후) 17.9%

○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인구감소/고령화’라는 응답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인구감소/고령화’라는 응답은 충청남도, 거주기간 20년 이상, 원주민, 거주 지역이 살기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농촌 주민에서 특히 높음.

○ 그다음으로, ‘미개발/저개발(낙후)’가 17.9%,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 부족’이 15.5%, ‘훼손된 경관/미관 및 악취’가 14.0%, ‘열악한 주거환경’이 12.5%, ‘무분별한 개발(난개발)’이 11.2% 순으로 나타남.

- ‘미개발·저개발(낙후)’라는 응답은 거주기간 1년 미만, 사무/관리직,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9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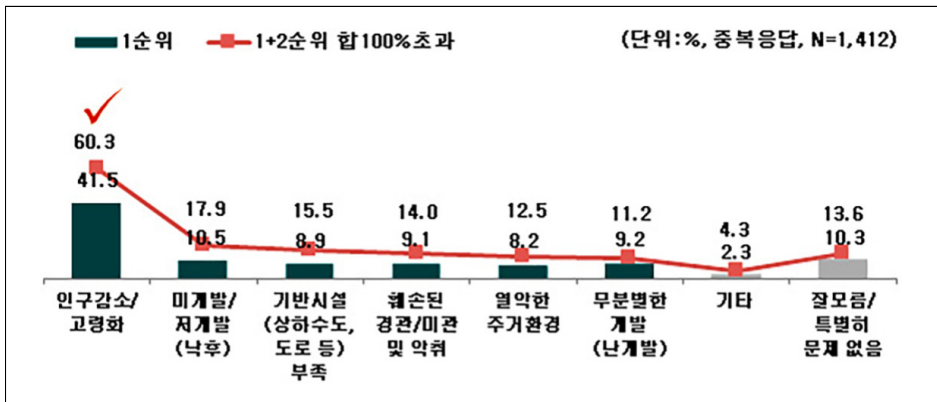


표 2-9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인구 감소·고령화	미개발·저개발(낙후)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 부족	훼손된 경관·미관 및 악취	열악한 주거 환경	무분별한 개발(난개발)	기타	잘모름/특별히 문제 없음
■ 전 체 ■		1,412	60.3	17.9	15.5	14.0	12.5	11.2	4.3	13.6
읍면지역	읍지역	679	60.7	17.7	16.3	13.8	11.8	14.0	4.1	13.4
	면지역	733	60.0	18.1	14.7	14.2	13.1	8.6	4.5	13.8
거주지역	경기도	107	29.0	15.0	18.7	20.6	19.6	26.2	4.7	19.6
	강원도	129	67.4	17.1	14.0	10.9	13.2	7.0	4.7	13.2
	충청북도	127	63.0	19.7	12.6	9.4	7.1	15.7	4.7	11.8
	충청남도	184	71.2	20.1	18.5	9.8	14.7	9.2	3.3	9.2
	전라북도	160	63.1	18.1	14.4	19.4	13.8	8.1	1.9	13.1
	전라남도	226	60.6	18.1	15.5	11.9	12.4	6.2	3.1	15.0
	경상북도	216	64.8	17.6	14.4	13.9	14.4	8.8	6.0	13.0
	경상남도	206	60.7	17.0	14.6	14.1	8.7	10.2	5.8	16.0
	제주도	57	35.1	17.5	21.1	26.3	5.3	29.8	5.3	10.5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61.9	19.4	15.4	13.8	12.2	13.0	2.1	13.1
	10분 이내	425	59.1	15.5	16.2	13.9	13.2	12.5	4.5	15.3
	30분 이내	332	61.7	18.4	14.2	15.1	12.0	6.9	7.2	11.1
	30분 이상	31	38.7	12.9	19.4	12.9	12.9	6.5	12.9	22.6
	모름/무응답	7	28.6	28.6	28.6	0.0	14.3	0.0	14.3	28.6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5.6	33.3	22.2	16.7	16.7	16.7	0.0	5.6
	1~5년 미만	60	60.0	16.7	33.3	11.7	13.3	13.3	0.0	10.0
	5~10년 미만	115	46.1	13.9	24.3	14.8	9.6	14.8	4.3	14.8
	10~20년 미만	192	53.1	21.4	25.0	15.6	13.5	10.4	1.6	16.7
	20년 이상	1,027	63.4	17.5	11.6	13.7	12.5	10.7	5.2	13.2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51.7	14.6	24.2	14.2	12.9	12.9	4.2	15.8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59.6	16.4	19.6	14.7	9.8	10.7	3.1	13.8
	귀농귀촌 안 함	947	62.7	19.1	12.4	13.8	13.0	10.9	4.6	13.0
직업	농/임/어업	598	61.7	16.7	11.4	13.2	14.0	9.2	5.9	13.9
	자영업	160	57.5	13.1	24.4	16.3	8.8	18.1	1.9	15.0
	사무/관리직	181	60.8	22.7	18.8	11.0	14.4	15.5	3.3	8.3
	생산/기능/ 노무직	76	55.3	22.4	23.7	14.5	9.2	10.5	2.6	15.8
	주부	162	54.3	9.9	19.1	20.4	9.9	13.0	3.1	17.9
	학생	34	58.8	20.6	26.5	20.6	5.9	11.8	0.0	17.6
	기타	201	65.2	25.4	10.0	10.9	13.4	6.5	5.0	11.4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54.6	14.4	16.3	14.8	11.1	13.6	4.4	15.9
	변화없이 유지	647	61.8	19.9	14.5	13.9	12.2	9.1	3.2	13.3
	살기 나빠짐	243	68.7	20.2	16.5	12.8	16.0	11.5	7.0	9.5

8.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

○ 조사문항 Q08.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계신 지역(시·군)에서 최근 3년 내에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다면 아래 항목 중 생활환경을 가장 훼손하는 개발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순위: 태양광 발전시설 16.1%

2순위: 축사 11.0%

○ 최근 3년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복응답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응답이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응답은 전라북도 거주자에서 특히 높음.

○ 그다음으로, '축사'가 11.0%, '아파트'가 10.2%, '공장/창고'가 7.2%, '마을이나 농지를 가르는 도로'가 6.0%, '전원주택'이 4.9%,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이 4.6%, '송전탑 및 전기선'이 4.0%, '펜션'이 3.7%, '음식점/숙박업소 등 상업시설'이 3.6%, '대형간판 등 각종 광고물'이 2.1% 순으로 나타남.

- '축사'라는 응답은 전라북도 거주, 농/임/어업 종사자 및 자영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 '모름/특별한 개발 없었음'이 51.2%로 나타남.

그림 2-10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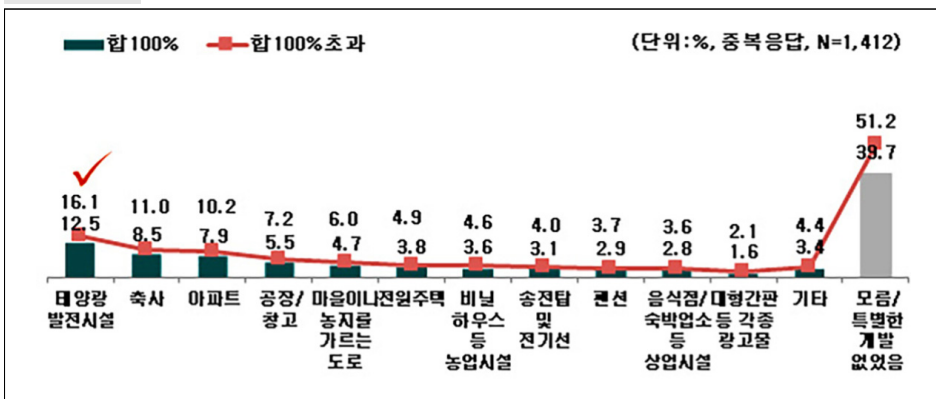


표 2-10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에 대한 응답자 특성

(이어서)

단위: %		사례 수	태양광 발전 시설	축사	아파트	공장·창고	마을이나 농지 를 가르는 도로	전원주택
■ 전 체 ■		1,412	16.1	11.0	10.2	7.2	6.0	4.9
읍면지역	읍지역	679	16.9	10.8	16.1	7.4	7.4	5.3
	면지역	733	15.4	11.2	4.8	7.0	4.8	4.5
거주지역	경기도	107	5.6	3.7	14.0	15.9	4.7	8.4
	강원도	129	17.1	10.9	14.0	4.7	5.4	6.2
	충청북도	127	11.8	14.2	9.4	12.6	4.7	7.1
	충청남도	184	15.8	14.7	8.2	8.7	6.0	2.2
	전라북도	160	23.1	15.6	6.3	3.8	6.3	5.0
	전라남도	226	17.3	9.3	11.5	6.2	6.6	2.7
	경상북도	216	18.5	11.6	8.8	3.7	7.4	4.2
	경상남도	206	15.0	8.7	9.7	7.3	5.3	4.9
	제주도	57	15.8	5.3	15.8	5.3	7.0	10.5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16.4	10.5	11.0	8.3	6.8	5.0
	10분 이내	425	17.6	12.0	11.1	7.1	5.2	5.2
	30분 이내	332	14.8	9.9	7.5	5.7	6.0	4.2
	30분 이상	31	9.7	16.1	9.7	3.2	3.2	6.5
	모름/무응답	7	0.0	14.3	14.3	0.0	0.0	0.0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6	11.1	0.0	5.6	0.0	5.6
	1~5년 미만	60	18.3	10.0	13.3	3.3	1.7	0.0
	5~10년 미만	115	18.3	13.9	8.7	7.8	4.3	7.0
	10~20년 미만	192	14.1	9.4	18.2	9.9	9.9	5.2
	20년 이상	1,027	16.4	11.0	8.9	6.8	5.8	4.9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16.3	10.0	14.6	4.2	4.2	7.9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15.1	12.4	9.8	8.9	4.4	3.1
	귀농귀촌 안 함	947	16.4	10.9	9.2	7.5	6.9	4.5
직업	농/임/어업	598	18.2	13.0	4.5	5.2	5.0	3.2
	자영업	160	13.8	13.1	11.9	11.3	5.0	4.4
	사무/관리직	181	17.7	12.2	18.8	9.4	8.8	8.8
	생산/기능/ 노무직	76	14.5	5.3	11.8	9.2	7.9	6.6
	주부	162	13.6	9.3	16.7	7.4	7.4	6.2
	학생	34	2.9	2.9	32.4	2.9	8.8	11.8
	기타	201	15.4	7.0	8.5	7.5	5.0	4.0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15.9	10.9	11.7	7.5	6.1	5.6
	변화없이 유지	647	14.5	9.3	8.5	7.1	5.9	4.6
	살기 나빠짐	243	21.0	15.6	11.5	6.6	6.2	4.1

(계속)

단위: %		사례 수	비닐 하우스 등 농업시설	송전탑 및 전기선	펜션	음식점·숙박업소 등 상업시설	대형 간판 등 각종 광고물	기타	모름/특별한 개발 없었음
■ 전 체 ■		1,412	4.6	4.0	3.7	3.6	2.1	4.4	51.2
읍면지역	읍지역	679	4.4	3.4	4.4	4.1	2.7	4.9	45.8
	면지역	733	4.8	4.5	3.0	3.1	1.6	4.0	56.2
거주지역	경기도	107	2.8	4.7	1.9	4.7	2.8	5.6	48.6
	강원도	129	5.4	5.4	5.4	6.2	2.3	4.7	50.4
	충청북도	127	4.7	3.1	3.9	1.6	4.7	7.9	43.3
	충청남도	184	6.5	6.0	2.2	4.9	2.2	4.9	48.4
	전라북도	160	1.9	3.1	1.9	3.1	1.3	1.9	50.6
	전라남도	226	3.5	3.1	4.0	2.7	0.9	1.3	57.5
	경상북도	216	3.2	3.7	1.9	3.2	0.9	6.0	55.1
	경상남도	206	8.3	3.4	4.9	3.9	3.4	5.3	50.5
	제주도	57	3.5	3.5	14.0	1.8	1.8	1.8	49.1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5.2	3.4	4.1	3.7	2.3	5.0	48.5
	10분 이내	425	4.9	4.7	3.5	4.5	2.4	3.8	47.3
	30분 이내	332	3.3	4.5	3.6	2.7	1.8	4.2	60.2
	30분 이상	31	3.2	0.0	0.0	0.0	0.0	3.2	54.8
	모름/무응답	7	0.0	0.0	0.0	0.0	0.0	0.0	85.7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6	0.0	0.0	5.6	5.6	5.6	66.7
	1~5년 미만	60	0.0	6.7	6.7	5.0	1.7	5.0	53.3
	5~10년 미만	115	5.2	6.1	3.5	2.6	2.6	5.2	46.1
	10~20년 미만	192	2.6	4.7	5.2	4.2	3.6	4.2	41.7
	20년 이상	1,027	5.2	3.5	3.3	3.5	1.8	4.3	53.2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3.3	5.0	5.0	1.7	2.5	6.3	45.4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2.7	3.6	3.1	3.1	2.7	4.9	52.4
	귀농귀촌 안 함	947	5.4	3.8	3.5	4.2	1.9	3.8	52.4
직업	농/임/어업	598	5.5	3.3	3.3	1.8	1.8	4.5	57.2
	자영업	160	3.1	5.6	2.5	7.5	4.4	6.3	42.5
	사무/관리직	181	3.9	2.2	5.0	3.9	2.2	3.3	43.1
	생산/기능/ 노무직	76	0.0	5.3	7.9	5.3	1.3	1.3	48.7
	주부	162	3.1	4.9	4.3	4.9	0.6	4.9	49.4
	학생	34	8.8	2.9	8.8	5.9	11.8	0.0	38.2
	기타	201	6.0	5.0	1.5	3.5	1.0	5.0	52.2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6.1	4.6	3.4	4.8	2.3	4.4	50.4
	변화없이 유지	647	3.4	3.1	3.6	2.8	1.5	3.9	55.5
	살기 나빠짐	243	4.5	4.9	4.5	3.3	3.3	5.8	41.6

제3장

농촌의 관리 방향 조사 결과



3

농촌의 관리 방향 조사 결과

1.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

○ 조사문항 Q09.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바람직한 모습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잘 보전된 풍경과 자연환경 존재 34.1%

2순위: 농촌답게 농업이 중심 32.3%

○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에 대해 살펴본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잘 보전된 풍경과 자연환경 존재'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으로는 '농촌답게 농업이 중심'이 28.7%로 높게 나타남.

- '잘 보전된 풍경과 자연환경 존재'라는 응답은 충청북도, 경상남도, 거주기간 1년 미만 등에서 특히 높고, '농촌답게 농업이 중심'이라는 응답은 거주기간 1년 이상, 원주민, 농/임/어업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농촌답게 농업이 중심’이 32.3%,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환경 우수’가 26.3%, ‘농업 이외에 공업/상업/관광 등 타산업이 발달’이 19.1%, ‘전통문화와 공동체가 잘 보전’이 16.1%, ‘도시민과 주민이 어울려 사는 전원 단지’가 14.5%, ‘편리한 도시생활을 누릴수 있는 현대화 주택단지’가 1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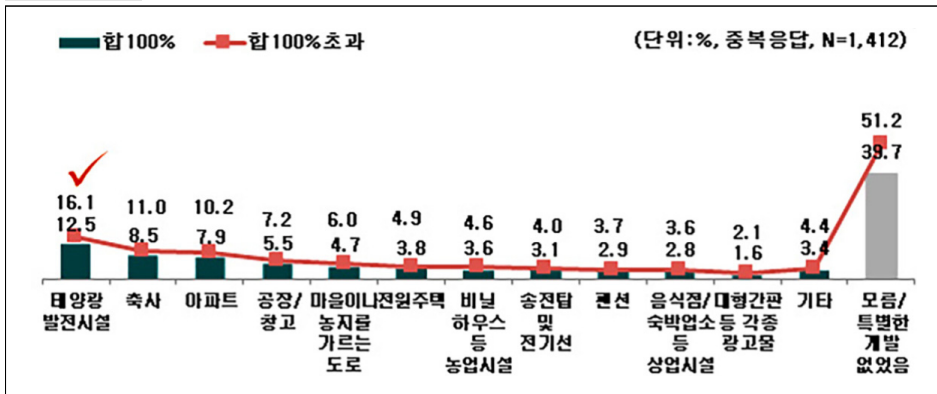


표 3-1 바람직한 농촌의 발전 모습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잘 보 전된 풍경과 자연 환경 존재	농촌 답게 농업이 중심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환경 우수	농업 이 외에 공업· 상업· 관광 등 타 산업 발달	전통문 화와 공동체 가 잘 보전	도시민과 주민이 어 울러 사는 전원단지	편리한 도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현 대화 주 택단지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412	34.1	32.3	26.3	19.1	16.1	14.5	10.9	4.5	7.2
읍면지역	읍지역	679	33.4	32.5	28.7	21.4	16.9	14.1	11.3	4.3	6.2
	면지역	733	34.7	32.1	24.0	17.1	15.4	14.9	10.5	4.6	8.2
거주지역	경기도	107	33.6	24.3	30.8	15.9	16.8	17.8	15.0	5.6	8.4
	강원도	129	30.2	28.7	29.5	26.4	14.7	17.1	9.3	3.9	9.3
	충청북도	127	43.3	30.7	28.3	18.1	14.2	11.8	14.2	1.6	4.7
	충청남도	184	34.8	33.7	24.5	20.1	20.1	17.9	11.4	1.6	4.3
	전라북도	160	30.6	36.3	21.9	18.1	17.5	9.4	11.3	3.8	10.0
	전라남도	226	30.1	30.5	26.5	19.5	17.7	13.3	13.7	5.8	6.6
	경상북도	216	29.2	37.5	22.2	18.1	12.5	15.7	8.3	6.0	10.2
	경상남도	206	41.3	30.6	30.6	18.4	14.1	13.6	7.8	6.8	5.3
	제주도	57	38.6	36.8	22.8	15.8	21.1	15.8	7.0	1.8	5.3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33.9	30.8	30.0	24.8	17.2	14.6	10.4	3.2	5.0
	10분 이내	425	35.1	34.1	26.1	15.3	16.2	15.5	11.8	5.4	7.8
	30분 이내	332	34.6	34.3	20.8	13.3	14.2	12.7	9.9	5.4	9.9
	30분 이상	31	25.8	16.1	19.4	19.4	16.1	19.4	19.4	6.5	9.7
	모름/무응답	7	0.0	28.6	0.0	28.6	14.3	14.3	14.3	0.0	28.6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0.0	38.9	22.2	33.3	5.6	5.6	11.1	0.0	0.0
	1~5년 미만	60	38.3	25.0	25.0	33.3	18.3	23.3	11.7	1.7	3.3
	5~10년 미만	115	42.6	28.7	35.7	20.0	14.8	12.2	13.0	3.5	3.5
	10~20년 미만	192	39.6	21.9	32.8	17.7	15.6	19.3	17.7	2.1	5.7
	20년 이상	1,027	31.5	35.0	24.1	18.2	16.5	13.5	9.3	5.3	8.3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39.2	27.1	33.8	20.4	11.7	15.4	13.3	4.2	5.0
	타농촌 지역에서 이주	225	34.7	28.9	29.8	23.1	18.2	16.0	12.4	0.9	5.3
	귀농귀촌 안 함	947	32.6	34.4	23.5	17.8	16.8	13.9	9.9	5.4	8.2
직업	농/임/어업	598	32.4	43.0	18.2	16.1	15.1	12.7	9.5	5.7	8.0
	자영업	160	35.0	26.3	31.9	24.4	21.3	20.0	10.6	3.8	3.1
	사무/관리직	181	39.8	19.9	45.9	23.2	13.8	13.3	13.3	2.8	2.2
	생산/기능/ 노무직	76	32.9	23.7	38.2	22.4	17.1	9.2	17.1	1.3	6.6
	주부	162	34.6	31.5	29.0	13.6	13.6	18.5	8.6	3.7	8.6
	학생	34	38.2	17.6	29.4	38.2	20.6	11.8	17.6	0.0	5.9
	기타	201	32.3	22.9	20.9	20.4	18.4	15.9	11.4	5.5	11.9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36.0	31.4	28.0	19.3	16.7	15.5	12.3	3.4	6.5
	변화없이 유지	647	33.7	34.0	25.7	19.0	15.3	14.7	9.4	4.2	7.6
	살기 나빠짐	243	30.9	29.6	24.3	18.9	17.3	11.9	11.9	7.4	7.8

2.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 때 애로사항

○ 조사문항 Q10.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농촌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 및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주민의 역량 부족 52.3%

2순위: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낙후된 산업 33.4%

○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 때 애로사항에 대해 살펴본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주민의 역량 부족’이라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민의 역량부족’이라는 응답은 읍면소재지까지 10분 이내, 농/임/어업 종사자 등에서 특히 높음.

○ 그다음으로,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낙후된 산업’이 33.4%,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부재’가 22.5%, ‘행정의 역량 부족’이 22.5%, ‘활용가치가 낮은 주위 자연환경’이 13.1% 순으로 나타남.

-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낙후된 사업’이라는 응답은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사무/관리직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 때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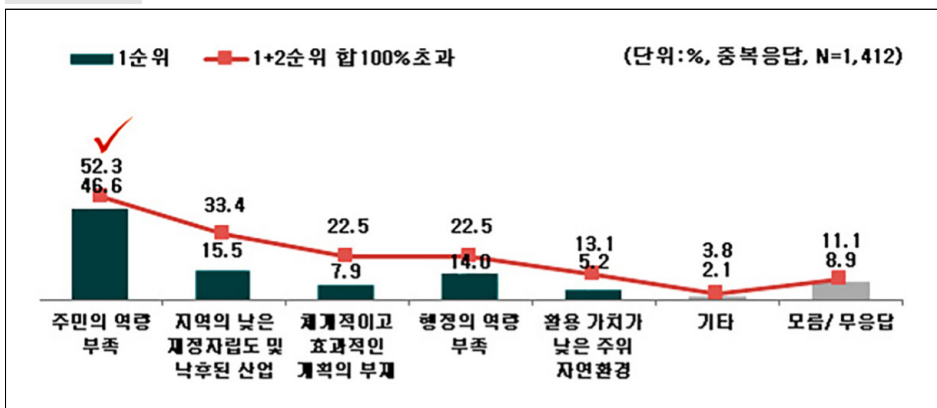


표 3-2 바람직한 농촌을 만들 때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주민의 역량 부족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낙후된 산업	체계 적이고 효 과적인 계 획의 부재	행정의 역량 부족	활용 가치가 낮은 주위 자연환경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412	52.3	33.4	22.5	22.5	13.1	3.8	11.1
읍면지역	읍지역	679	51.1	34.8	25.3	25.8	12.1	2.2	9.7
	면지역	733	53.3	32.1	19.9	19.4	14.1	5.2	12.4
거주지역	경기도	107	29.9	29.0	30.8	35.5	20.6	2.8	13.1
	강원도	129	54.3	35.7	16.3	28.7	10.9	3.1	10.1
	충청북도	127	50.4	28.3	26.0	22.8	7.9	3.1	16.5
	충청남도	184	56.0	37.0	22.8	20.1	12.0	3.3	9.8
	전라북도	160	56.9	33.1	23.8	21.3	8.8	4.4	12.5
	전라남도	226	57.5	38.5	20.4	18.6	12.4	5.3	8.8
	경상북도	216	58.3	29.2	20.8	19.0	13.9	4.6	10.6
	경상남도	206	47.6	36.9	21.8	21.8	15.0	1.5	10.2
	제주도	57	42.1	19.3	26.3	24.6	24.6	7.0	12.3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51.2	38.6	23.3	23.2	13.3	2.9	9.4
	10분 이내	425	56.7	30.6	23.3	20.9	14.1	1.4	11.3
	30분 이내	332	50.0	28.0	20.5	23.8	11.4	7.8	12.0
	30분 이상	31	35.5	32.3	16.1	16.1	12.9	9.7	29.0
	모름/무응답	7	57.1	0.0	28.6	14.3	14.3	0.0	28.6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0.0	33.3	16.7	16.7	16.7	5.6	16.7
	1~5년 미만	60	43.3	38.3	26.7	25.0	15.0	1.7	13.3
	5~10년 미만	115	48.7	40.0	28.7	36.5	8.7	2.6	5.2
	10~20년 미만	192	45.3	33.3	37.5	28.1	12.5	2.1	8.3
	20년 이상	1,027	54.5	32.3	18.9	19.8	13.5	4.3	12.1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46.3	30.8	28.3	32.9	12.5	2.9	10.4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52.0	35.1	27.1	21.8	10.7	3.1	11.1
	귀농귀촌 안 함	947	53.9	33.6	20.0	20.0	13.8	4.1	11.3
직업	농/임/어업	598	57.4	31.1	16.1	19.9	11.2	5.7	11.5
	자영업	160	43.1	35.0	30.6	29.4	18.1	3.1	6.9
	사무/관리직	181	50.3	44.8	32.0	31.5	13.3	0.0	6.6
	생산/기능/ 노무직	76	39.5	32.9	31.6	28.9	21.1	2.6	10.5
	주부	162	51.9	28.4	24.7	19.1	12.3	3.1	15.4
	학생	34	47.1	32.4	29.4	20.6	20.6	2.9	11.8
	기타	201	52.2	32.8	20.4	16.9	10.9	3.0	13.9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52.3	31.0	22.0	20.7	12.6	3.6	13.8
	변화없이 유지	647	54.4	32.3	23.0	21.6	14.2	2.8	9.6
	살기 나빠짐	243	46.5	41.2	22.2	28.4	11.1	6.6	9.5

제4장

농촌계획의 도입 방향 조사 결과



4

농촌계획의 도입 방향 조사 결과

1.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 조사문항 Q11. 정부는 2003년 농촌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 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등의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살고 계신 지역(시·군)에서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55.2% > 발생함 17.9%

-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생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5.2%(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32.6%, 대체로 발생 안함 22.6%), ‘발생함’이라는 응답이 17.9%(매우 많이 발생함 6.3%, 대체로 발생함 11.6%)로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읍지역, 제주/충북/경기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

그림 4-1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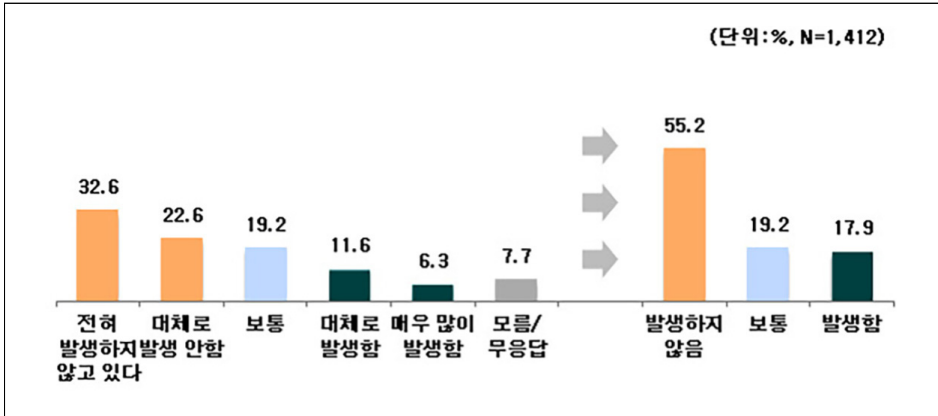


표 4-1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 발생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발생 안 함	보통	대체로 발생함	매우 많이 발생함	모름/무응답	발생하지 않음	보통	발생함
■ 전 체 ■		1,412	32.6	22.6	19.2	11.6	6.3	7.7	55.2	19.2	17.9
읍면지역	읍지역	679	25.2	24.4	19.9	13.4	8.1	9.0	49.6	19.9	21.5
	면지역	733	39.4	20.9	18.6	10.0	4.6	6.5	60.3	18.6	14.6
거주지역	경기도	107	31.8	19.6	19.6	8.4	14.0	6.5	51.4	19.6	22.4
	강원도	129	31.0	25.6	17.8	9.3	6.2	10.1	56.6	17.8	15.5
	충청북도	127	28.3	22.8	13.4	15.0	8.7	11.8	51.2	13.4	23.6
	충청남도	184	34.2	20.7	22.3	12.0	3.8	7.1	54.9	22.3	15.8
	전라북도	160	34.4	26.3	19.4	9.4	4.4	6.3	60.6	19.4	13.8
	전라남도	226	33.2	18.1	23.5	11.1	4.9	9.3	51.3	23.5	15.9
	경상북도	216	34.7	23.1	19.4	8.8	6.5	7.4	57.9	19.4	15.3
	경상남도	206	34.5	26.2	14.6	14.1	5.3	5.3	60.7	14.6	19.4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제주도	57	19.3	19.3	22.8	24.6	8.8	5.3	38.6	22.8	33.3
	5분 이내	617	29.5	25.4	18.5	11.7	7.3	7.6	54.9	18.5	19.0
	10분 이내	425	32.9	21.9	20.7	12.0	4.7	7.8	54.8	20.7	16.7
	30분 이내	332	37.3	19.0	18.1	11.7	6.0	7.8	56.3	18.1	17.8
	30분 이상	31	38.7	9.7	22.6	6.5	12.9	9.7	48.4	22.6	19.4
	모름/무응답	7	28.6	42.9	28.6	0.0	0.0	0.0	71.4	28.6	0.0
거주기간	1년 미만	18	16.7	27.8	22.2	16.7	0.0	16.7	44.4	22.2	16.7
	1~5년 미만	60	23.3	33.3	15.0	18.3	3.3	6.7	56.7	15.0	21.7
	5~10년 미만	115	29.6	20.9	20.9	14.8	8.7	5.2	50.4	20.9	23.5
	10~20년 미만	192	18.8	20.8	26.0	13.0	10.9	10.4	39.6	26.0	24.0
	20년 이상	1,027	36.3	22.4	17.9	10.5	5.5	7.4	58.7	17.9	16.0

(계속)

단위: %		사례 수	전혀 발생 하지 않고 있다	대체로 발생 안 함	보통	대체로 발생함	매우 많이 발생함	모름/ 무응답	발생 하지 않음	보통	발생함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23.8	21.3	20.4	17.5	9.2	7.9	45.0	20.4	26.7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29.3	28.0	20.0	11.1	5.8	5.8	57.3	20.0	16.9
	귀농귀촌 안 함	947	35.6	21.6	18.7	10.2	5.7	8.1	57.2	18.7	15.9
직업	농/임/어업	598	39.8	21.1	18.2	9.0	5.4	6.5	60.9	18.2	14.4
	자영업	160	23.1	29.4	15.0	15.0	11.3	6.3	52.5	15.0	26.3
	사무/관리직	181	19.3	24.9	23.2	15.5	9.4	7.7	44.2	23.2	24.9
	생산/기능/노무직	76	23.7	23.7	21.1	14.5	7.9	9.2	47.4	21.1	22.4
	주부	162	29.6	21.0	20.4	13.6	4.9	10.5	50.6	20.4	18.5
	학생	34	14.7	26.5	35.3	14.7	0.0	8.8	41.2	35.3	14.7
	기타	201	39.3	19.9	17.4	10.0	4.0	9.5	59.2	17.4	13.9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33.1	21.8	20.5	10.5	6.9	7.1	55.0	20.5	17.4
	변화없이 유지	647	34.0	23.8	18.7	11.9	4.3	7.3	57.8	18.7	16.2
	살기 나빠짐	243	27.6	21.0	17.7	13.2	10.3	10.3	48.6	17.7	23.5

2.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계획 필요 여부

○ 조사문항 Q12. 도시는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촌에도 농촌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계획이 필요함 76.5% > 필요하지 않음 7.0%

○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계획 필요 여부 조사 결과, '필요함'이라는 응답이 76.5% (매우 필요 42.9%, 대체로 필요 33.6%),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0%(매우 필요성 낮음 2.6%, 대체로 필요성 낮음 4.4%)로 농촌계획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자영업 및 사무/관리직 종사자 등에서 특히 높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경상북도 거주, 읍면소재지까지 30분 이상, 거주기간 20년 이상 등의 농촌 주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2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계획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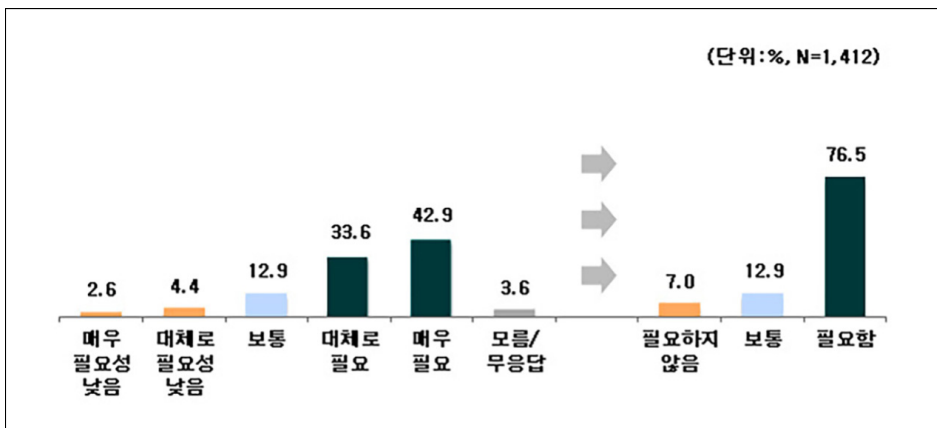


표 4-2 농촌 발전을 위한 농촌계획 필요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매우 필요성 낮음	대체로 필요성 낮음	보통	대체로 필요	매우 필요	모름/ 무응답	필요 하지 않음	보통	필요함
■ 전 체 ■		1,412	2.6	4.4	12.9	33.6	42.9	3.6	7.0	12.9	76.5
읍면지역	읍지역	679	2.2	3.5	13.8	34.5	43.6	2.4	5.7	13.8	78.1
	면지역	733	3.0	5.2	12.0	32.7	42.3	4.8	8.2	12.0	75.0
거주지역	경기도	107	3.7	2.8	7.5	36.4	45.8	3.7	6.5	7.5	82.2
	강원도	129	0.8	4.7	15.5	28.7	47.3	3.1	5.4	15.5	76.0
	충청북도	127	2.4	3.1	14.2	30.7	44.1	5.5	5.5	14.2	74.8
	충청남도	184	3.3	2.7	13.6	35.3	44.0	1.1	6.0	13.6	79.3
	전라북도	160	3.1	3.1	13.1	37.5	36.3	6.9	6.3	13.1	73.8
	전라남도	226	2.7	4.0	14.2	33.6	39.4	6.2	6.6	14.2	73.0
	경상북도	216	4.6	6.9	12.0	29.2	44.9	2.3	11.6	12.0	74.1
	경상남도	206	1.0	6.8	9.2	36.4	45.1	1.5	7.8	9.2	81.6
	제주도	57	0.0	1.8	22.8	35.1	38.6	1.8	1.8	22.8	73.7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2.3	2.6	11.3	34.5	46.7	2.6	4.9	11.3	81.2
	10분 이내	425	2.6	4.9	13.2	32.5	42.1	4.7	7.5	13.2	74.6
	30분 이내	332	3.3	6.0	14.5	36.1	36.7	3.3	9.3	14.5	72.9
	30분 이상	31	3.2	12.9	22.6	9.7	38.7	12.9	16.1	22.6	48.4
	모름/무응답	7	0.0	14.3	14.3	0.0	71.4	0.0	14.3	14.3	71.4
거주기간	1년 미만	18	0.0	11.1	22.2	38.9	27.8	0.0	11.1	22.2	66.7
	1~5년 미만	60	3.3	3.3	20.0	28.3	45.0	0.0	6.7	20.0	73.3
	5~10년 미만	115	1.7	3.5	13.0	30.4	48.7	2.6	5.2	13.0	79.1
	10~20년 미만	192	1.6	1.6	13.5	37.0	42.2	4.2	3.1	13.5	79.2
	20년 이상	1,027	2.9	5.0	12.2	33.5	42.6	3.9	7.9	12.2	76.0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1.7	4.2	12.5	30.8	47.5	3.3	5.8	12.5	78.3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3.6	4.4	12.0	36.0	41.8	2.2	8.0	12.0	77.8
	귀농귀촌 안 함	947	2.6	4.4	13.2	33.7	42.0	4.0	7.1	13.2	75.7
직업	농/임/어업	598	2.7	5.4	10.0	32.1	45.5	4.3	8.0	10.0	77.6
	자영업	160	0.6	4.4	9.4	33.8	51.3	0.6	5.0	9.4	85.0
	사무/관리직	181	2.8	2.2	11.6	34.3	49.2	0.0	5.0	11.6	83.4
	생산/기능/노무직	76	0.0	3.9	14.5	44.7	36.8	0.0	3.9	14.5	81.6
	주부	162	3.7	5.6	17.9	32.1	35.2	5.6	9.3	17.9	67.3
	학생	34	0.0	8.8	38.2	41.2	11.8	0.0	8.8	38.2	52.9
	기타	201	4.5	2.0	16.4	32.8	36.8	7.5	6.5	16.4	69.7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1.9	3.3	12.5	35.8	43.3	3.3	5.2	12.5	79.1
	변화없이 유지	647	2.6	5.3	13.9	33.5	41.1	3.6	7.9	13.9	74.7
	살기 나빠짐	243	4.1	4.5	11.1	28.8	46.9	4.5	8.6	11.1	75.7

3. 농촌계획 수립 시 우선되는 가치

○ 조사문항 Q13.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농촌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의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 항목 중 우선되는 가치의 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전 78.0% > 이용 74.3%

○ 농촌계획 수립 시 우선되는 가치에 대해 살펴본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보전: 농촌다움과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라는 응답이 7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전’이라는 응답은 제주도 거주, 읍면소재지까지 30분 이내 거주하는 농촌 주민 등에서 특히 높음.

○ 그다음으로, ‘이용: 농촌모습 유지하고 농·임업을 위한 이용 허용/편의시설 설치’가 74.3%, ‘개발: 농촌 모습 바꾸는 산업단지 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 시행’이 47.7% 순으로 나타남.

- ‘이용’이라는 응답은 거주기간 5~20년 미만, 자영업 및 사무/관리직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3 농촌계획 수립 시 우선되는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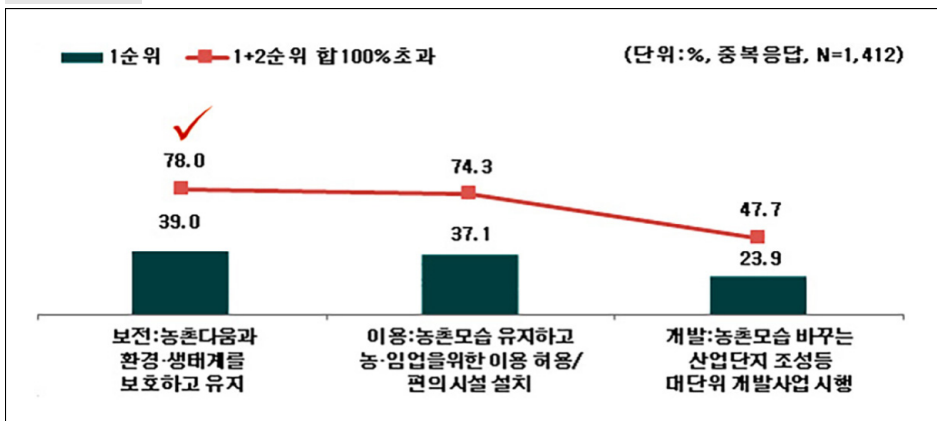


표 4-3 농촌계획 수립 시 우선되는 가치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보전: 농촌다움과 환경·생태 계를 보호하고 유지	이용: 농촌모습 유지하고 농· 임업을 위한 이용 허용· 편의시설 설치	개발: 농촌모습 바꾸는 산업단 지 조성 등 대단위 개발 사업 시행
■ 전 체 ■		1,412	78.0	74.3	47.7
읍면지역	읍지역	679	76.4	74.7	48.9
	면지역	733	79.4	73.9	46.7
	경기도	107	70.1	79.4	50.5
거주지역	강원도	129	70.5	76.7	52.7
	충청북도	127	80.3	78.7	40.9
	충청남도	184	76.1	73.4	50.5
	전라북도	160	77.5	73.8	48.8
	전라남도	226	78.8	70.8	50.4
	경상북도	216	79.2	69.4	51.4
	경상남도	206	82.0	76.7	41.3
	제주도	57	89.5	77.2	33.3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74.6	76.5	48.9
	10분 이내	425	79.3	76.7	44.0
	30분 이내	332	83.4	70.2	46.4
	30분 이상	31	71.0	45.2	83.9
	모름/무응답	7	71.4	57.1	71.4
거주기간	1년 미만	18	72.2	77.8	50.0
	1~5년 미만	60	76.7	85.0	38.3
	5~10년 미만	115	75.7	86.1	38.3
	10~20년 미만	192	78.6	81.8	39.6
	20년 이상	1,027	78.3	70.9	50.8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82.5	79.6	37.9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70.7	80.0	49.3
	귀농귀촌 안 함	947	78.6	71.6	49.8
직업	농/임/어업	598	79.9	69.7	50.3
	자영업	160	71.3	84.4	44.4
	사무/관리직	181	77.9	83.4	38.7
	생산/기능/ 노무직	76	71.1	77.6	51.3
	주부	162	83.3	65.4	51.2
	학생	34	76.5	82.4	41.2
	기타	201	76.1	76.1	47.8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78.2	77.2	44.6
	변화없이 유지	647	77.4	73.3	49.3
	살기 나빠짐	243	79.0	70.8	50.2

4.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의견

○ 조사문항 Q14. 선생님께서는 농촌을 보전하기 위한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순위: 일부만 기준 강화 42.1%

2순위: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 강화 31.2%

○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본 결과, ‘일부 보전이 필요한 농산지만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강화’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부만 기준 강화’라는 응답은 읍지역, 경기도,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거주, 거주기간 1~20년 미만, 타 농촌 지역에서 이주, 자영업 및 사무/관리직 종사, 거주 지역이 살기 좋아짐 등에서 특히 높음.

○ 그다음으로,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 강화’가 31.2%, ‘대부분 농산지에 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 완화’가 17.9% 순으로 나타남.

-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 강화’라는 응답은 면지역, 농/임/어업 종사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4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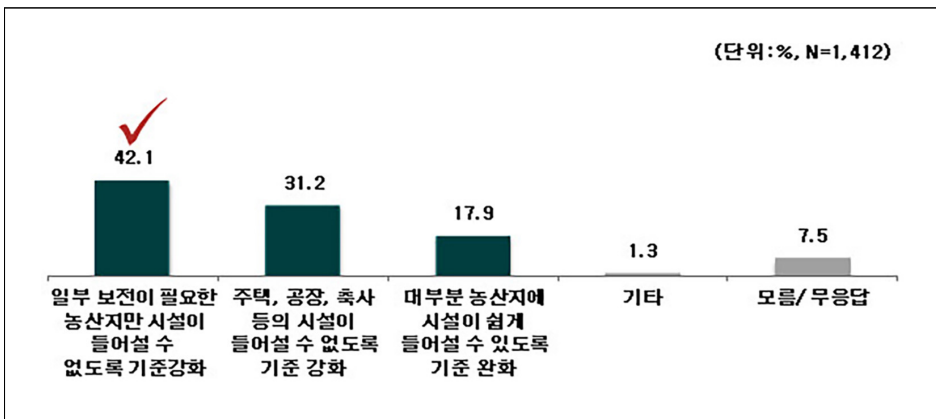


표 4-4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일부 보전이 필요한 농산지만 시설이 들 어설 수 있도록 기준 강화	주택, 공장, 축사 등 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 강화	대부분 농산지에 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 완화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412	42.1	31.2	17.9	1.3	7.5
읍면지역	읍지역	679	46.1	28.3	18.0	0.7	6.9
	면지역	733	38.3	33.8	17.9	1.9	8.0
거주지역	경기도	107	52.3	17.8	20.6	0.9	8.4
	강원도	129	43.4	25.6	19.4	1.6	10.1
	충청북도	127	39.4	35.4	15.7	0.8	8.7
	충청남도	184	42.9	29.9	20.7	1.1	5.4
	전라북도	160	33.1	35.0	21.9	2.5	7.5
	전라남도	226	38.9	33.2	18.1	0.9	8.8
	경상북도	216	43.1	35.6	15.7	0.5	5.1
	경상남도	206	46.1	29.1	16.0	2.4	6.3
	제주도	57	42.1	35.1	8.8	1.8	12.3
읍면 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47.2	28.5	17.2	0.8	6.3
	10분 이내	425	38.8	34.4	17.9	1.2	7.8
	30분 이내	332	38.3	32.5	18.1	2.4	8.7
	30분 이상	31	29.0	25.8	29.0	3.2	12.9
	모름/무응답	7	28.6	28.6	28.6	0.0	14.3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0.0	38.9	11.1	0.0	0.0
	1~5년 미만	60	55.0	23.3	10.0	1.7	10.0
	5~10년 미만	115	51.3	32.2	11.3	0.9	4.3
	10~20년 미만	192	50.5	29.2	15.6	1.0	3.6
	20년 이상	1,027	38.6	31.7	19.7	1.5	8.6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45.0	35.4	12.9	1.7	5.0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48.9	28.9	17.8	0.4	4.0
	귀농귀촌 안 함	947	39.7	30.6	19.2	1.5	9.0
직업	농/임/어업	598	33.9	37.0	19.9	1.5	7.7
	자영업	160	56.9	23.1	16.3	1.3	2.5
	사무/관리직	181	61.9	23.8	11.6	1.7	1.1
	생산/기능/ 노무직	76	44.7	27.6	21.1	1.3	5.3
	주부	162	39.5	32.1	13.0	1.2	14.2
	학생	34	52.9	11.8	29.4	0.0	5.9
	기타	201	35.8	30.8	19.9	1.0	12.4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45.6	29.7	16.3	1.5	6.9
	변화없이 유지	647	41.7	31.2	18.4	0.9	7.7
	살기 나빠짐	243	35.4	34.2	20.2	2.1	8.2

5. 토지사용 규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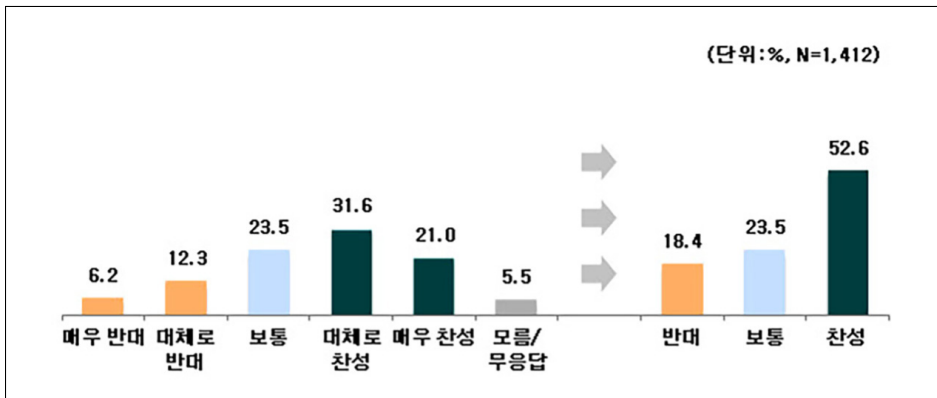
○ 조사문항 Q15. 선생님께서는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농촌을 물려주기 위해서 토지사용에 다소 규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토지사용 규제 찬성 52.6% > 반대 18.4%

○ 토지사용 규제 찬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찬성’이라는 응답이 52.6%(매우 찬성 21.0%, 대체로 찬성 31.6%), ‘반대’라는 응답이 18.4%(매우 반대 6.2%, 대체로 반대 12.3%)로 토지사용 규제를 찬성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찬성’이라는 응답은 경상남도에서 특히 높고, ‘반대’라는 응답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5 토지사용 규제 찬반에 대한 의견



- ‘찬성’ 응답은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 등에서 특히 높고, ‘반대’ 응답은 읍면소재지까지 30분 이상, 자영업 종사자에서 특히 높음.

표 4-5 토지사용 규제 찬반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매우 반대	대체로 반대	보통	대체로 찬성	매우 찬성	모름/무응답	반대	보통	찬성
■ 전 체 ■		1,412	6.2	12.3	23.5	31.6	21.0	5.5	18.4	23.5	52.6
읍면지역	읍지역	679	6.0	11.9	24.3	32.8	20.6	4.3	18.0	24.3	53.5
	면지역	733	6.3	12.6	22.8	30.4	21.4	6.5	18.8	22.8	51.8
거주지역	경기도	107	11.2	15.0	15.9	29.9	23.4	4.7	26.2	15.9	53.3
	강원도	129	5.4	13.2	20.9	34.1	20.9	5.4	18.6	20.9	55.0
	충청북도	127	7.9	9.4	23.6	33.1	22.8	3.1	17.3	23.6	55.9
	충청남도	184	7.1	15.2	26.1	29.9	17.4	4.3	22.3	26.1	47.3
	전라북도	160	6.9	8.8	25.6	30.0	21.9	6.9	15.6	25.6	51.9
	전라남도	226	6.2	13.7	22.1	30.1	21.2	6.6	19.9	22.1	51.3
	경상북도	216	5.1	14.4	25.9	28.2	20.4	6.0	19.4	25.9	48.6
	경상남도	206	3.4	9.2	24.3	36.9	21.4	4.9	12.6	24.3	58.3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제주도	57	3.5	8.8	22.8	35.1	22.8	7.0	12.3	22.8	57.9
	5분 이내	617	5.8	11.3	23.3	31.3	23.7	4.5	17.2	23.3	54.9
	10분 이내	425	6.1	11.8	24.0	33.4	19.3	5.4	17.9	24.0	52.7
	30분 이내	332	5.7	14.5	24.4	30.7	19.0	5.7	20.2	24.4	49.7
	30분 이상	31	12.9	12.9	16.1	25.8	12.9	19.4	25.8	16.1	38.7
거주기간	모름/무응답	7	28.6	14.3	0.0	14.3	28.6	14.3	42.9	0.0	42.9
	1년 미만	18	16.7	5.6	38.9	22.2	16.7	0.0	22.2	38.9	38.9
	1~5년 미만	60	0.0	11.7	35.0	25.0	21.7	6.7	11.7	35.0	46.7
	5~10년 미만	115	8.7	14.8	21.7	37.4	14.8	2.6	23.5	21.7	52.2
	10~20년 미만	192	3.6	10.9	25.5	38.0	19.8	2.1	14.6	25.5	57.8
귀농귀촌 여부	20년 이상	1,027	6.5	12.4	22.4	30.3	22.0	6.4	18.9	22.4	52.3
	귀농귀촌	240	5.4	10.8	24.2	33.3	21.7	4.6	16.3	24.2	55.0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6.2	12.4	22.7	35.6	19.6	3.6	18.7	22.7	55.1
직업	귀농귀촌 안 함	947	6.3	12.6	23.5	30.2	21.2	6.1	18.9	23.5	51.4
	농/임/어업	598	8.2	11.5	19.7	28.9	24.9	6.7	19.7	19.7	53.8
	자영업	160	3.8	18.8	22.5	35.6	18.1	1.3	22.5	22.5	53.8
	사무/관리직	181	3.3	11.0	31.5	31.5	21.0	1.7	14.4	31.5	52.5
	생산/기능/노무직	76	1.3	10.5	25.0	47.4	11.8	3.9	11.8	25.0	59.2
	주부	162	5.6	11.1	31.5	25.3	19.8	6.8	16.7	31.5	45.1
	학생	34	2.9	8.8	32.4	44.1	8.8	2.9	11.8	32.4	52.9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기타	201	7.5	12.4	19.9	33.3	18.4	8.5	19.9	19.9	51.7
	살기 좋아짐	522	5.7	13.6	20.9	33.0	21.8	5.0	19.3	20.9	54.8
	변화없이 유지	647	5.4	10.7	26.4	30.1	20.9	6.5	16.1	26.4	51.0
	살기 나빠짐	243	9.1	13.6	21.4	32.5	19.8	3.7	22.6	21.4	52.3

6.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강화가 필요한 주체

○ 조사문항 Q16. 선생님께서 희망하는 미래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중에, 지금보다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지방자치단체 67.9%

2순위: 지역 주민 54.5%

○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강화가 필요한 주체에 대해 살펴본 결과, 1+2순위 중복응답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이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다음으로, ‘지역 주민’이 54.5%, ‘정부’가 52.9%, ‘시민단체’가 15.9%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강화가 필요한 주체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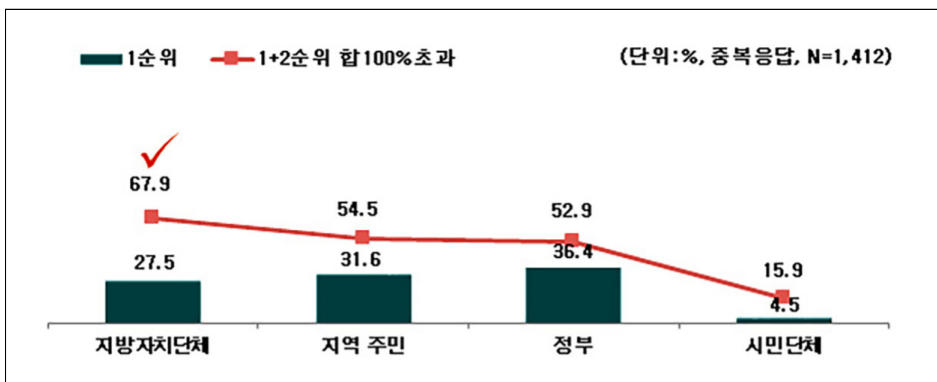


표 4-6 농촌계획 수립 시 역할강화가 필요한 주체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정부	시민단체
■ 전 체 ■		1,412	67.9	54.5	52.9	15.9
읍면지역	읍지역	679	67.3	54.9	52.0	16.8
	면지역	733	68.5	54.0	53.8	15.1
거주지역	경기도	107	72.9	56.1	50.5	16.8
	강원도	129	70.5	50.4	51.2	17.1
	충청북도	127	65.4	59.8	52.8	11.0
	충청남도	184	66.8	57.1	52.2	17.4
	전라북도	160	71.9	51.3	53.1	16.9
	전라남도	226	68.6	49.6	57.1	13.3
	경상북도	216	69.9	50.5	55.6	15.3
	경상남도	206	61.2	57.8	53.9	17.5
	제주도	57	64.9	71.9	33.3	22.8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71.0	54.8	50.6	14.9
	10분 이내	425	66.8	55.5	55.1	15.5
	30분 이내	332	66.9	52.1	55.1	16.3
	30분 이상	31	41.9	54.8	45.2	35.5
	모름/무응답	7	28.6	71.4	57.1	28.6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5.6	61.1	50.0	16.7
	1~5년 미만	60	60.0	70.0	43.3	20.0
	5~10년 미만	115	73.0	61.7	47.8	13.0
	10~20년 미만	192	64.1	61.5	47.9	18.8
	20년 이상	1,027	68.7	51.3	55.0	15.5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70.0	60.0	42.9	18.8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68.0	58.7	50.7	17.3
	귀농귀촌 안 함	947	67.4	52.1	56.0	14.9
직업	농/임/어업	598	69.2	49.2	56.4	14.2
	자영업	160	64.4	70.6	45.0	16.3
	사무/관리직	181	72.4	57.5	49.2	17.1
	생산/기능/노무직	76	65.8	57.9	50.0	17.1
	주부	162	62.3	51.2	52.5	19.8
	학생	34	55.9	64.7	50.0	20.6
	기타	201	70.1	54.2	54.2	15.4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69.2	55.0	51.3	15.5
	변화없이 유지	647	69.2	53.9	53.9	14.2
	살기 나빠짐	243	61.7	54.7	53.5	21.4

7.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

○ 조사문항 Q1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에 가장 효율적인 농촌계획의 수립 단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읍·면 단위 30.9%

2순위: 마을 단위 20.8%

○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읍·면 단위’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읍·면 단위’라는 응답은 읍지역, 읍면소재지까지 5분 이내 거주 농촌 주민에서 특히 높음.

○ 그다음으로, ‘마을 단위’가 20.8%, ‘시·군 단위’가 20.2%, ‘몇 개 마을 연계’가 11.2%, ‘몇 개 읍·면 연계’가 6.2% 순으로 나타남.

- ‘마을 단위’라는 응답은 면지역, 읍면소재지까지 30분 이내, 1~5년 미만 거주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7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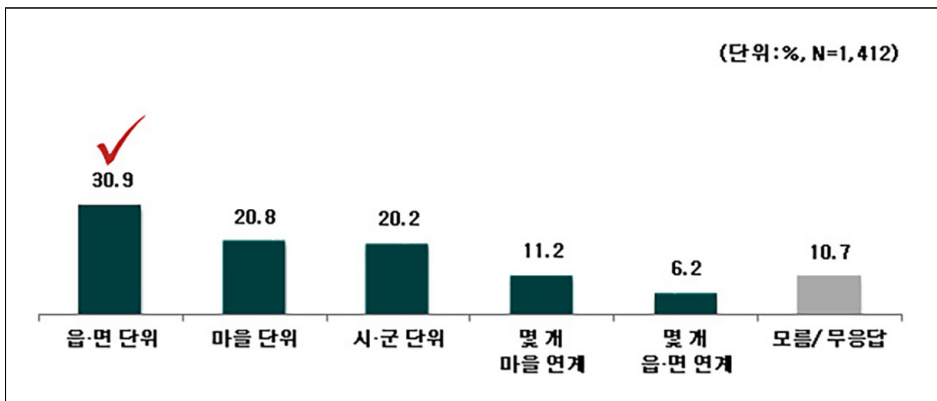


표 4-7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읍·면 단위	마을 단위	시·군 단위	몇 개 마을 연계	몇 개 읍·면 연계	모름/ 무응답
■ 전 체 ■		1,412	30.9	20.8	20.2	11.2	6.2	10.7
읍면지역	읍지역	679	33.6	18.6	21.2	10.8	6.6	9.3
	면지역	733	28.4	22.9	19.2	11.6	5.9	12.0
거주지역	경기도	107	31.8	18.7	23.4	13.1	4.7	8.4
	강원도	129	30.2	19.4	26.4	9.3	3.9	10.9
	충청북도	127	33.9	18.9	15.0	13.4	6.3	12.6
	충청남도	184	33.2	16.8	23.4	12.0	6.0	8.7
	전라북도	160	30.0	23.1	20.0	11.3	6.9	8.8
	전라남도	226	27.0	24.8	19.0	10.6	4.4	14.2
	경상북도	216	30.6	19.4	20.8	8.8	10.6	9.7
	경상남도	206	29.1	21.4	18.4	13.6	5.8	11.7
읍면 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제주도	57	42.1	26.3	10.5	7.0	5.3	8.8
	5분 이내	617	35.0	17.7	22.5	10.4	5.7	8.8
	10분 이내	425	30.4	19.8	21.4	11.3	7.5	9.6
	30분 이내	332	25.0	28.0	15.4	12.7	5.7	13.3
	30분 이상	31	19.4	16.1	9.7	12.9	6.5	35.5
거주기간	모름/무응답	7	28.6	42.9	14.3	0.0	0.0	14.3
	1년 미만	18	16.7	27.8	38.9	5.6	5.6	5.6
	1~5년 미만	60	13.3	35.0	25.0	15.0	5.0	6.7
	5~10년 미만	115	33.9	15.7	22.6	15.7	6.1	6.1
	10~20년 미만	192	34.4	17.2	21.4	13.0	8.9	5.2
귀농귀촌 여부	20년 이상	1,027	31.2	21.1	19.1	10.2	5.8	12.6
	귀농귀촌	240	30.0	22.5	22.1	11.3	4.6	9.6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28.9	14.7	22.7	12.4	8.4	12.9
직업	귀농귀촌 안 함	947	31.6	21.9	19.1	10.9	6.1	10.5
	농/임/어업	598	28.9	24.9	17.1	12.0	5.2	11.9
	자영업	160	30.0	17.5	26.9	15.0	7.5	3.1
	사무/관리직	181	40.3	16.0	24.9	9.4	7.7	1.7
	생산/기능/노무직	76	31.6	25.0	17.1	10.5	6.6	9.2
	주부	162	25.9	12.3	24.7	8.0	8.6	20.4
	학생	34	38.2	8.8	23.5	11.8	14.7	2.9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기타	201	31.3	22.9	16.9	10.0	3.5	15.4
	살기 좋아짐	522	29.9	19.7	20.9	13.2	5.9	10.3
	변화없이 유지	647	32.1	22.4	19.6	9.6	6.3	9.9
	살기 나빠짐	243	29.6	18.9	20.2	11.1	6.6	13.6

8.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

○ 조사문항 Q18.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에 질문 드린 (Q17) 단위에서 농촌계획을 수립한다면, 선생님께서는 계획 수립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 있음 60.1% > 참여 의향 없음 15.2%

○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참여 의향 있음’이라는 응답이 60.1%(매우 참여 의향 있다 26.1%, 대체로 참여 의향 있다 33.9%), ‘참여의향 없음’이라는 응답이 15.2%(전혀 참여 의향 없다 6.6%, 별로 참여 의향 없다 8.6%)로 농촌계획 수립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8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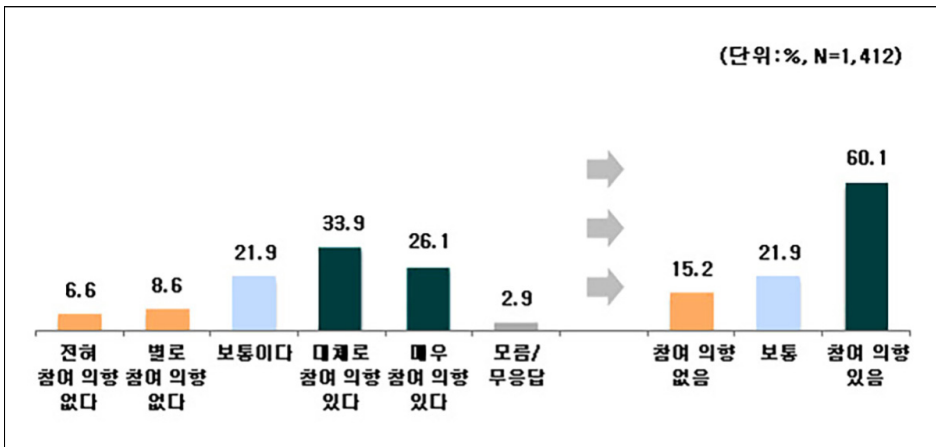


표 4-8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전혀 참여 의향 없다	별로 참여 의향 없다	보통 이다	대체로 참여 의향 있다	매우 참여 의향 있다	모름/ 무응답	참여 의향 없음	보통	참여 의향 있음
■ 전 체 ■		1,412	6.6	8.6	21.9	33.9	26.1	2.9	15.2	21.9	60.1
읍면지역	읍지역	679	5.0	9.1	24.9	33.4	23.9	3.7	14.1	24.9	57.3
	면지역	733	8.0	8.0	19.1	34.4	28.2	2.2	16.1	19.1	62.6
거주지역	경기도	107	6.5	5.6	27.1	25.2	32.7	2.8	12.1	27.1	57.9
	강원도	129	5.4	11.6	18.6	31.8	28.7	3.9	17.1	18.6	60.5
	충청북도	127	3.9	8.7	24.4	29.1	31.5	2.4	12.6	24.4	60.6
	충청남도	184	4.9	9.2	20.7	37.0	25.5	2.7	14.1	20.7	62.5
	전라북도	160	4.4	5.0	25.6	31.9	28.8	4.4	9.4	25.6	60.6
	전라남도	226	9.7	7.1	21.2	35.8	23.5	2.7	16.8	21.2	59.3
	경상북도	216	8.3	11.1	23.1	33.3	20.8	3.2	19.4	23.1	54.2
	경상남도	206	6.3	9.2	15.5	41.3	26.2	1.5	15.5	15.5	67.5
	제주도	57	8.8	8.8	28.1	29.8	21.1	3.5	17.5	28.1	50.9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5.5	8.4	22.4	32.4	28.2	3.1	13.9	22.4	60.6
	10분 이내	425	5.2	9.2	20.2	36.9	26.1	2.4	14.4	20.2	63.1
	30분 이내	332	9.0	7.5	23.8	34.3	22.6	2.7	16.6	23.8	56.9
	30분 이상	31	19.4	16.1	16.1	22.6	19.4	6.5	35.5	16.1	41.9
	모름/무응답	7	14.3	0.0	14.3	14.3	42.9	14.3	14.3	14.3	57.1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6	11.1	38.9	16.7	27.8	0.0	16.7	38.9	44.4
	1~5년 미만	60	5.0	11.7	26.7	26.7	25.0	5.0	16.7	26.7	51.7
	5~10년 미만	115	4.3	7.0	28.7	34.8	22.6	2.6	11.3	28.7	57.4
	10~20년 미만	192	4.7	8.3	26.0	37.0	22.4	1.6	13.0	26.0	59.4
	20년 이상	1,027	7.3	8.6	19.8	34.0	27.3	3.1	15.9	19.8	61.2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5.4	5.4	20.8	32.5	32.9	2.9	10.8	20.8	65.4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4.4	8.4	27.1	39.1	18.2	2.7	12.9	27.1	57.3
	귀농귀촌 안 함	947	7.4	9.4	20.9	33.1	26.3	3.0	16.8	20.9	59.3
직업	농/임/어업	598	4.7	7.9	16.1	34.3	33.8	3.3	12.5	16.1	68.1
	자영업	160	6.3	6.3	23.8	35.0	27.5	1.3	12.5	23.8	62.5
	사무/관리직	181	5.5	9.4	26.0	36.5	22.1	0.6	14.9	26.0	58.6
	생산/기능/ 노무직	76	3.9	10.5	27.6	35.5	21.1	1.3	14.5	27.6	56.6
	주부	162	11.1	8.6	29.0	30.9	16.0	4.3	19.8	29.0	46.9
	학생	34	2.9	5.9	61.8	26.5	2.9	0.0	8.8	61.8	29.4
	기타	201	11.4	11.4	19.4	32.8	19.9	5.0	22.9	19.4	52.7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5.9	8.0	21.5	35.8	25.7	3.1	14.0	21.5	61.5
	변화없이 유지	647	6.5	9.3	24.0	32.9	25.0	2.3	15.8	24.0	58.0
	살기 나빠짐	243	8.2	7.8	17.3	32.5	30.0	4.1	16.0	17.3	62.6

9. 희망하는 농촌계획 수립 내용

○ 조사문항 Q19. 농촌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내용의 계획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농촌의 농업발전과 소득 향상 36.3%

2순위: 종합 계획 32.6%

○ 희망하는 농촌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농촌의 농업발전과 소득 향상’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촌의 농업발전과 소득 향상’이라는 응답은 거주기간 20년 이상, 농/임/어업 종사자 등에서 특히 높음.

○ 그다음으로, ‘위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종합 계획’이 32.6%, ‘생활환경, 농업 여건을 해치는 개발행위 방지’가 13.1%,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가 11.9% 순으로 나타남.

- ‘생활환경, 농업 여건을 해치는 개발행위 방지’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라는 응답은 읍면소재지에서 30분 이상 거리에서 거주하는 농촌 주민에서 특히 높음.

그림 4-9 희망하는 농촌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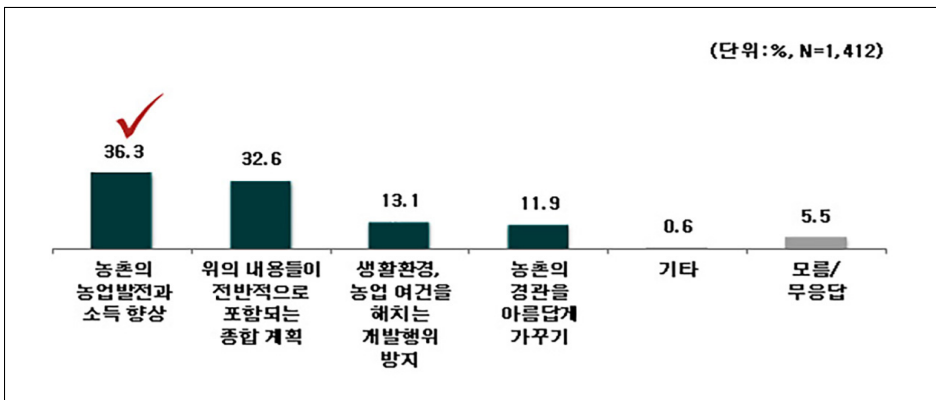


표 4-9 희망하는 농촌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사례 수	농촌의 농업 발전과 소득 향상	위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종합 계획	생활환경, 농업 여건을 해치는 개발 행위 방지	농촌의 경관 을 아름답게 가꾸기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412	36.3	32.6	13.1	11.9	0.6	5.5
읍면지역	읍지역	679	34.9	36.7	14.1	9.6	0.1	4.6
	면지역	733	37.5	28.9	12.1	14.1	1.1	6.3
거주지역	경기도	107	22.4	39.3	16.8	14.0	0.9	6.5
	강원도	129	41.1	28.7	10.1	14.7	0.0	5.4
	충청북도	127	36.2	32.3	16.5	11.0	0.0	3.9
	충청남도	184	31.0	41.3	11.4	12.5	0.5	3.3
	전라북도	160	39.4	34.4	10.6	8.8	1.9	5.0
	전라남도	226	36.7	28.3	12.4	14.2	0.4	8.0
	경상북도	216	40.3	29.2	15.7	8.3	0.9	5.6
	경상남도	206	38.8	31.6	11.7	12.1	0.5	5.3
	제주도	57	33.3	31.6	15.8	14.0	0.0	5.3
읍면 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36.0	36.5	11.3	11.2	1.0	4.1
	10분 이내	425	38.6	31.5	12.7	11.3	0.5	5.4
	30분 이내	332	35.2	27.7	16.3	13.9	0.3	6.6
	30분 이상	31	22.6	19.4	19.4	16.1	0.0	22.6
	모름/무응답	7	28.6	57.1	14.3	0.0	0.0	0.0
거주기간	1년 미만	18	11.1	44.4	16.7	27.8	0.0	0.0
	1~5년 미만	60	18.3	50.0	13.3	11.7	0.0	6.7
	5~10년 미만	115	38.3	39.1	10.4	9.6	0.0	2.6
	10~20년 미만	192	25.5	43.8	18.2	9.9	0.0	2.6
	20년 이상	1,027	39.5	28.6	12.4	12.3	0.9	6.3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30.8	37.1	14.6	11.7	0.0	5.8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32.0	42.7	12.0	11.6	0.0	1.8
	귀농귀촌 안 함	947	38.6	29.1	13.0	12.0	1.0	6.2
직업	농/임/어업	598	44.0	22.7	14.0	12.0	1.0	6.2
	자영업	160	29.4	46.3	11.9	10.6	0.6	1.3
	사무/관리직	181	29.8	51.4	10.5	7.2	0.0	1.1
	생산/기능/ 노무직	76	35.5	35.5	15.8	11.8	0.0	1.3
	주부	162	27.2	29.0	17.3	14.8	0.6	11.1
	학생	34	23.5	47.1	14.7	11.8	0.0	2.9
	기타	201	34.3	33.8	9.0	14.4	0.5	8.0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35.2	37.0	12.5	10.7	0.6	4.0
	변화없이 유지	647	37.4	29.8	13.3	12.7	0.8	6.0
	살기 나빠짐	243	35.4	30.9	14.0	12.3	0.4	7.0

10. 마을 공동시설 필요여부

○ 조사문항 Q20.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계신 지역(시·군)에 소득 증대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동시설이 있습니까?

마을 공동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50.1% > 필요하다 49.9%

○ 마을 공동시설 필요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50.1%, ‘예’라는 응답이 49.9%로 나타나 두 응답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공동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거주기간 20년 이상, 귀농귀촌 안 함, 거주 지역이 변화 없이 유지된다고 인식하는 농촌주민에서 특히 높고, ‘공동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거주기간 5~20년 미만, 귀농귀촌 함, 타 농촌지역에서 이주, 사무/관리직 종사자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그림 4-10 마을 공동시설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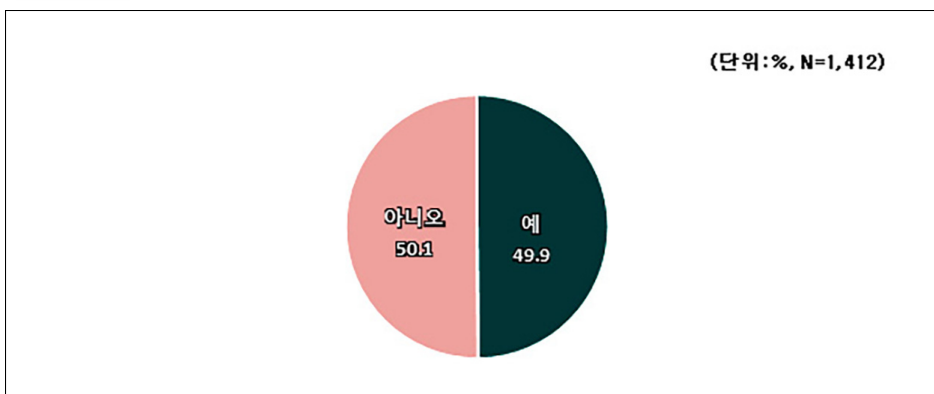


표 4-10 마을 공동시설 필요 여부에 대한 응답자 특성

단위: % ■ 전 체 ■		사례 수	예	아니오
읍면지역	읍지역	679	50.2	49.8
	면지역	733	49.5	50.5
거주지역	경기도	107	50.5	49.5
	강원도	129	48.1	51.9
	충청북도	127	52.8	47.2
	충청남도	184	50.5	49.5
	전라북도	160	49.4	50.6
	전라남도	226	48.2	51.8
	경상북도	216	45.4	54.6
	경상남도	206	55.3	44.7
	제주도	57	49.1	50.9
읍면소재지 까지 차량 이동시간	5분 이내	617	47.8	52.2
	10분 이내	425	51.1	48.9
	30분 이내	332	51.8	48.2
	30분 이상	31	58.1	41.9
	모름/무응답	7	28.6	71.4
거주기간	1년 미만	18	50.0	50.0
	1~5년 미만	60	50.0	50.0
	5~10년 미만	115	58.3	41.7
	10~20년 미만	192	57.8	42.2
	20년 이상	1,027	47.4	52.6
귀농귀촌 여부	귀농귀촌	240	56.7	43.3
	타농촌지역에서 이주	225	56.9	43.1
	귀농귀촌 안 함	947	46.5	53.5
직업	농/임/어업	598	47.3	52.7
	자영업	160	56.3	43.8
	사무/관리직	181	65.2	34.8
	생산/기능/노무직	76	53.9	46.1
	주부	162	43.2	56.8
	학생	34	44.1	55.9
	기타	201	43.3	56.7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	살기 좋아짐	522	54.8	45.2
	변화없이 유지	647	46.5	53.5
	살기 나빠짐	243	48.1	51.9

11. 마을에 필요한 공동시설

○ 조사문항 Q21. 필요한 공동시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입니까?
생각나시는 대로 모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4-11 마을에 필요한 공동시설(중복응답)

내용	빈도	빈도 퍼센트 (%)
병원	116	16.5%
체육시설/운동시설	78	11.1%
마을회관	55	7.8%
공동작업장	47	6.7%
CCTV	44	6.3%
공동창고 및 공동저장소	42	6.0%
공동 농기계 창고	39	5.5%
(공동)주차장	35	5.0%
노인회관/경로당	35	5.0%
문화시설	34	4.8%
(마을)도로확장	32	4.5%
쉼터	28	4.0%
(초중고대)학교	27	3.8%
약국	24	3.4%
(어린이)놀이터	22	3.1%
도서관	16	2.3%
버스정류장	16	2.3%
농기계 정비소	15	2.1%
노인(복지)시설	14	2.0%
어린이집/유치원	14	2.0%
공원	13	1.8%
목욕탕	10	1.4%
교육시설	10	1.4%
편의시설	9	1.3%
농기계 대여소	9	1.3%
공동 판매시설	9	1.3%
복지관 및 복지시설	8	1.1%
농공단지/공장/기업유치	7	1.0%

주: 빈도수 1% 이상만 기입.

제5장

조사 결과 요약



5

조사 결과 요약

□ 조사 개요

-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크게 거주 지역에 대한 농촌 주민 인식과 농촌의 관리 방향 및 농촌계획의 도입 방향 등을 조사하였음.
- 전문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의 도움을 받아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412명을 대상으로, 2019. 9. 23. ~ 2019. 10. 1. 기간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CATI)를 수행하였음.

□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 조사

- 농촌지역에 대하여 거주 주민들은 다양한 농촌의 모습을 인지하고 있음. 전형적 농촌지역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외에도 농사 외의 일을 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 도시민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오는 지역, 도시화 되고 있는 지역, 관광지가 개발되어 민박집이나 음식점이 많은 지역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거주 지역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그 이유로 도로 및 기초인프라 정비로 생활환경 개선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도 지가 상승, 자연환경 개선, 농업 외 일자리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음. 반면, 거주 지역이 예전보다 살기 나빠졌다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지역에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자리 감소, 자연환경 악화, 공동체성 및 농촌다움 약화 등의 이유가 존재하였음.

- 이러한 응답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농촌 경관이 아름답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농촌 주민들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면지역 거주자들은 거주 지역에 대해 별다른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읍지역 거주자들은 주택지 개발, 신재생에너지시설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거주 지역의 장점으로서는 잘 보전된 농촌경관과 자연환경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면지역 거주자 응답에서 특히 높았음. 한편, 거주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미개발, 저개발 및 기반시설 부족, 훼손된 경관, 열악한 주거환경, 무분별한 개발(난개발) 등이 제기됨.

- 거주 지역에서 최근 3년 내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개발로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축사, 아파트, 공장/창고 등을 꼽았음.

□ 농촌의 관리 방향 조사

○ 향후 농촌의 바람직한 발전 모습 조사 결과, 농촌 주민들은 잘 보전된 풍경과 자연환경의 모습을 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응답하였음. 농촌답게 농업이 중심

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은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이며 농림어업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음. 이 외에도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환경 우수, 농업 이외에 공업, 상업, 관광 등 타산업 발달, 전통문화와 공동체가 잘 보전된 모습 등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이러한 농촌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 및 애로사항으로 주민들은 주민의 역량 부족과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및 낙후된 산업을 꼽았음. 또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부재, 행정의 역량 부족, 활용가치가 낮은 주위 자연환경 순으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음.

□ 농촌계획의 도입 방향 조사

○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대부분 충북, 경기, 제주도에 거주하였음. 응답자 중 50%가 넘는 주민들이 최근 3년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 응답자 중 약 80%가 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농촌계획 수립 시 우선되는 가치로 보전(농촌다움과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과 이용(농촌 모습 유지하고 농림업을 위한 이용 허용, 편의시설 설치)에 높은 동의를 나타냈으며, 개발(농촌모습 바꾸는 산업단지 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 시행)에는 비교적 호응이 낮게 나타남.

-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 강화가 완화에 비해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토지사용 규제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됨.

○ 농촌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역할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자체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됨.

- 농촌 주민들은 농촌계획 수립 시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효율적인 농촌계획 수립 단위로 주민들은 읍면단위에 가장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마을 단위가 2순위, 시군 단위가 3순위, 몇 개 마을 연계가 4순위로 조사됨.
- 주민들이 희망하는 농촌계획의 내용으로는 농촌의 농업발전과 소득향상 및 종합계획이 1,2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생활환경 및 농업 여건을 해치는 개발행위 방지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비교적 높았음.
 - 마을 공동시설 필요 여부에 대해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공동시설로는 병의원, 체육시설 및 운동시설,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CCTV, 공동창고 및 공동저장소, 공동 농기계 창고, 주차장 등의 순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임.

①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졌다 ➡ Q02-1번 문항으로
②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 Q03번 문항으로
③ 전반적으로 살기 나빠졌다 ➡ Q02-2번 문항으로

- ① 농업 이외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 ② 지역의 땅값이 올랐다
- ③ 도로 및 기초인프라가 정비되어 지역의 생활환경이 나아졌다.
- ④ 귀촌 등으로 인해 지역에 사람들이 늘어났다.
- ⑤ 자연보호 활동 및 친환경 농업 등을 통해 자연환경이 좋아졌다.
- ⑥ 기타 ()

- 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 ② 주변이 개발되면서 마을의 농촌다운 풍경이 바뀌었다.
- ③ 외지인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인심이 나빠졌다.
- ④ 하천이 오염되고 공기가 나빠지는 등 자연환경이 나빠졌다.
- ⑤ 사람들이 늘고 많이 돌아가셔서, 지역에 사람이 없다.
- ⑥ 기타 ()

농촌 경관은 논, 밭 등 농경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 산·하천 등의 자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llegible]

[PART C. 농촌계획의 도입 방향]

Q11. 정부는 2003년 농촌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 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는 등의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살고 계신 지역(시·군)에서 최근 3년 간 난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② 대체로 발생 안함 ③ 보통
④ 대체로 발생함 ⑤ 매우 많이 발생함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2. 도시는 장래 도시발전을 위해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촌에도 농촌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성 낮음 ② 대체로 필요성 낮음 ③ 보통
④ 대체로 필요 ⑤ 매우 필요 ⑥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Q13.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농촌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의 어떤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 항목 중 우선되는 가치의 순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보전: 농촌다움과 환경·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② 이용: 농촌의 모습을 유지한 채 농업·임업 등의 생산을 위한 이용 허용. 주민편의 상 소규모 시설 설치
③ 개발: 농촌의 모습을 바꾸는 산업단지·주거단지 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 시행. 도시적 개발

Q14. 선생님께서는 농촌을 보전하기 위한 농지 및 산지 전용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대부분의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 강화
② 일부 보전이 필요한 농지/산지만 주택, 상업, 공장, 축사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기준 강화, 나머지 농산지는 기준 완화
③ 대부분의 농지와 산지에 주택, 상업, 공장, 축사 등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 완화
④ 기타()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5. 선생님께서는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농촌을 물려주기 위해서 토지사용에 다소 규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대체로 반대 ③ 보통
④ 대체로 찬성 ⑤ 매우 찬성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6. 선생님께서 희망하는 미래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들 중에, 지금보다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정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민단체 ④ 지역 주민

Q17. 선생님께서 생각하시에 가장 효율적인 농촌계획의 수립 단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 단위 ② 몇 개 마을 연계 ③ 읍·면 단위 ④ 몇 개 읍·면 연계 ⑤ 시·군 단위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8.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에 질문 드린(Q17) 단위에서 농촌계획을 수립한다면, 선생님께서는 계획 수립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참여 의향 없다 ② 별로 참여 의향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참여 의향 있다 ⑤ 매우 참여 의향 있다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